

# 고향이야기

—德

## 소개글

# 목차

1 고향

4

## 1-1. 질매지(안령),

내가 난 동네는 행정상으로는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속칭 안령(질매지)마을이다.

우리동네는 1514년 홍나호라는 선비가 개척하여 마을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을 이름의 연유는 안령(안령)마을의 모양이 질매(소의 들마)와 같다 하여 질매재(鞍嶺)이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그 동네는 점점 발전하여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지금은 이름이 유래된 그곳에는 집이 별로 없다.

안령과 부히를 잇는 신작로가 있기 전에는 고개(안령재, 질매재, 안재)가 있었는데 그산길을 우리는 나무하러 다니면서 다니곤 했다.

그 고개가 일제때 신작로가 만들어지고 굽이굽이 곡선을 감아 돌아가던 것이 두차례의 공사로 인해 지금은 고개 같지 않은 고개로 변해 버렸다.

정겨운 동네 이름들은 이상하게 행정동명이 생기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각자의 정겨운 동네이름을 한번 떠올려보자 거의 순수 한글이름과 그리고 그를 한역한 한자이름 두가지를 가지게 있지 않은지?

## 1-2. 안마와 감재

질매지의 원래 마을은 안마이다. 어느 동네든 안마실은 거의 다 있고.. 안마, 옷마, 아랫마.....

감재는 동네가 커가면서 들 가까운 곳으로 점점 넓혀졌는데 그 들쪽의 마을을 감재라 했다.

시장아들은 우리동네 전체를 안마라 부르고 동네 중간의 나는 위를 안마, 아래를 감재가 하는데 안마사람들은 우리보고도 감재라 했다...

감재가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동네가 있으면 이를 다시 작게 쪼개서 부르는 것이 우리네 전통 동네이름 부르기인 것 같다.

마을에는 4개의 샘이 있었는데 가장 안마(안마실)에 하나 그 아래 또하나 중간에 하나 감재하나가 있어

이 우물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생활권을 만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혹시 감재란 말뜻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가르켜 주세요)!

## 1-3. 동족촌

우리나라의 동리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동족촌이다. 특히 영남지방은 더 확연한 동족촌을 이루고 있다.

우리 면만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성만 보고 어느 마을 아인지 대충 짐작을 해냈다.

어느 해 부산고모가 우리집에 편지를 보냈는데 주소에 경북 군위군 소안령하고 민아무개 앞이라 했는데 편지가 배달되리만치 우리 민문은 군 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마을에만 살았다.

안령에는 민, 연씨, 화창, 화실에는 은씨. 보르골에는 흥씨, 연곡에는 이씨, 산법은 흥씨와 남씨...등으로

성씨만 보면 대충 어느 마실에 사는지 구분이 갔다.

또한 같은 성이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고로 누구든 만나면 친척인 된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그가 나오는 몇촌간인지 아는 것은 당 연지사이다.

작금의 세태에서 4촌만 넘어가면 그 촌수 헤아림이 어렵고 친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의 구분,

조카, 질녀, 생질, 이질의 구분, 질부 질서, 손부 손서, 숙부, 재종숙, 삼종숙등을 알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다.

## 1-4. 민가와 연씨,

나의 8대조이며 소보 입향조이신 松巖公 幾字할배(1687-1756)가 청송 안덕면에서 에서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여흥민문의 마을이 되었다.

청송의 입향조는 興字할배인데 그는 태종의 처남 無자疾자 할배의 손자이다. 민무질 할배가 태종의 외척탄압때 사사되고 세종대왕이 그의 아 드님 轟자할배를 복권시켰으나 興자할배는 청송으로 남하 안덕면 명당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 興자할배의 8대손이 우리 소보 입향조이고 그 幾자할배의 8대손이 나이다.

그할배가 올때 비슷한 시기에 곡산연씨도 같이 살았는데 미터(묘자리)가 2곳 있어서 한곳은 자손이 출세하고 또한 곳은 번창하는 터가 있었는데 손이 귀한 우리 민문이 말바(馬岩)에 미터를 써서 민문이 현재 숫적으로는 우리가 연씨에 비해 훨씬 우세하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어릴 때 약 80호가 되었는데 이중 약 60호는 여흥민문이고 15호는 곡산연씨 그리고 나머지는 타성바지 였다.

어째건 한마을에 민가와 연씨 모두가 흔치않은 두성씨가 살게 되어 마을을 이룬것이 안령이다

## 1-5. 면내 마을이름들

가. 소보면 :

. 소소보부곡(召召保部曲)에서, 조선조에 소소본면(召召本面) 또는 석본면(召本面), 1914년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석본면(石本面 또는 石乙本面 : 서경, 쾌경, 평지, 산법, 화계, 상원, 안령 7개 동리) 화곡면(花谷面 : 위성, 사촌, 대량, 달목, 낭성, 백현, 보촌, 복성, 울리, 사지, 두개, 수철의 12개 동리)

산동면(山東面 : 신흥, 상개, 오류의 동리)을 병합하여 소보면(召保面)이라 했다 한다.

부곡이란 천민들이 모여 사는 부락의 이름인 것을 보면 아주 옛적에는 노비들이 많이 살았을 터일 것이다. 산세가 그래서인지 우리면에서는 별로 인물이 없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두모국과 서경국의 부족국가가 명멸하는 곳이기도 하다

나. 내의리(來儀里) :

. 암대(양암이 있다 하여), 대포(大浦·大砲 : 임진왜란 때 장대봉에 대포를 놓고 쏘았다하여),

. 옷암대(상양, 상량), 아랫암대(하양, 하량),

. 언실(어이동, 어의동 : 鳳凰來儀의 옷이 펄렁거리는 모습)과 같다 하여 언실(於依), 옷언실(상어, 상어의, 어의) 아랫언실(하어, 하어의),

- . 양지마(양촌), 음지마(음촌), 진재(장현;長峴),
- . 모로골(毛老, 慕魯 : 임진왜란 때 마을 뒤 골짜기 피난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다 하여)
- 다. 달산리(達山里) :
  - . 두란(달목 : 望月所에서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고 놀았다고 하여),
  - . 엄문(영월 엄씨가 많이 살았다는 것), 법주거래(법주 : 법주사 입구에 형성된 부락)
  - . 홀거리(홀골, 명곡(楡谷) : 마을 앞에 홀들이 있는데 농업 용수로 이용하였다하여 붙여진 이름
  - . 수철(새점, 쇠점) : 뒷산에 쇠가 나는 곳이 있어서, 현재도 광산의 흔적이 남아 있음
  - . 두개실(두개곡, 豆介里),
- 라. 도산리(桃山里)
  - . 우무실(優無室, 중간마을, 도원(桃原) : 걱정 없이 잘 사는 마을이라는 뜻, 복숭아 나무가 많다하여
  - . 원마(원말, 개산) : 조선 때에 원집이 있었다
  - . 냇물(새마을, 고부실(故甫室), 남일(藍-) : 어둡기 전에 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내머리재가 내밀재로 새터,
  - . 칠풍(칠봉) : 뒷산에 일곱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 있다 하여
- 마. 보현리(寶峴里)
  - . 보촌 : 뒷산에 철광이 있다 하여 보촌이라 한다.
  - . 힌티(백현;白峴) : 옛날에 나무가 없을 때 산의 흙이 희게 보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 점동네(점촌) : 웅기를 구웠다고 하여 점동네
- 바. 복성리(福星里)
  - . 집리(楫里, 복성(福星), 복천(福泉) : 복샘이 있었으므로 복천, 복성, 집리라 하였다..
  - . 독정(獨亭) : 마을 옆에 정자가 외로이 있다 하여
  - . 거치래기(황산동;荒山) : 산이 거칠다 하여 황산이라고 하며 부락 뒷골에 황물터가 있었다고 하여
  - . 큰마아(큰마을, 대촌) : 집리 일부로서 제일 큰 마을이란 뜻, 옛날에 고을의 원이 살았다고 한다.
  - . 굴티(구리팅) : 집리 일부로서 구부러진 비탈에 비스듬히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앞에 강이 흐르고 있다.
  - . 은점문(은지편, 은저문) :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응달쪽의 마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 들가운지(야중(野中) : 복성 남서쪽 들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 거리말 : 황산동 내의 남쪽 강가에 있는 마을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중산(中山) : 복성 서쪽에 있는 마을로 복성동과 사리동 사이 산기슭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 사. 봉소리(鳳韶里)
  - . 두모뜰(두모뜰,두모(斗毛) : 하소 서쪽, 내 건너에 있는 부락, 두모국이 이 곳에 개국하여 선정하던 자리로 지금도 도들머리산의 기슭을 파 보면 토기류 등 옛 유물이 나타나고 있다.
  - . 상소(上韶) : 통소를 볼면 봉황이 날아오른다는 뜻으로 소보면의 본명으로 전해진다.
  - . 하소 : 상소와는 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력곡이라는 골이 깊어 천수답 시절에도 수리가 좋았다는 곳
- 아. 봉황리(鳳凰里)
  - . 범바우(범바위, 부황골, 부황골, 봉황동, 호암) : 동네 뒤의 바위가 범이 앉은 것 같은 형상
  - . 달천(達川, 월천) : 위천의 모양이 마치 달같이 흐르고 있음에 의한 명칭이다
  - . 부형이, 부영이, 연곡(蓮谷) : 골안 연못에 연꽃이 많이 피어, 부영이라는 전설은 옛날 두모국의 왕이 적국 장사에게 쫓기어 환심고개에서 붙잡혔는데 장상의 날세고용맹스러운 모습을 짐승에 비하여
- 자. 사리리(沙里里)
  - . 가는뱀이(울리;栗里, 사리;沙里) : 밤나무가 성하여 울리(栗里), 마을 앞내에 모래가 많았으므로 사리
  - . 새기터(사기터, 사지(沙只) : 옛날에 사기를 구웠던 곳
- 차. 산법리(山法里)
  - . 산법골(산허리, 산법, 산월리) : 산의 형세가 반월과 같아, 신라때 산사가 있었다하여 산법
  - . 아랫뜸 : 1959년 전에는 10가구가 모여 살았으나 저수지 설치로 지금은 사라진 마을이다.
  - . 위 뜸 : 산법 남쪽에 있는 마을로 중뜸에서 약 700m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박씨가 주성을 이룬다.
  - . 중 뜸 : 산법 중앙에 있는 마을로 남씨, 홍씨가 주성을 이룬다.
- 카. 서경리(西京里)
  - . 돌밑(石下, 西京, 석영(石英) : 차돌이 있는 산 밑, 삼국 시대에 상주국과 서경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 서경국의 수도였다는 설. 대릉, 봉릉, 태봉이 있으며 풍령에는 석불이 남아 있다.
  - . 어미골, 용수골, 용수곡, 용소, 용수(龍水) : 못에서 용이 승천하였다고
- 타. 송원리(松院里)
  - . 대송(大松, 오류동(五柳洞) : 큰 소나무가 많아서,
  - . 돌정자(석정;石亭) : 부락 북편 큰 바위에 정자나무가 서 있어 돌정자로 불리워졌다.
  - . 질매재(안령;鞍嶺) : 고개가 말지르매(질매)같이 생겼다 하여불리워진 별칭
  - . 장터(시장) : 1958년 소보시장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장터가 있다하여 장터
- 하. 신계리(新溪里)
  - . 화일(花日, 華日) : 방천에 복숭아꽃이 많아서 파일이라 불렀고 파일장터가 있었는데 64년에 없어졌다. . 웃말(신계) ; 신계리의 본동으로 구 씨, 손씨가 주성을 이루며 살고 있다.
  - . 상골 : 화일 서쪽에 있는 마을로 동네의 위쪽에 있다하여 상골이라 한다.
- 거. 위성리(渭城里)

- . 낭자(浪子, 낭성(浪城), 위성) : 낭재가 낭자로 된 듯도 하며 옛날 이 곳에 성이 있어 유래된 마을
- . 대령이(대량(大良)) : 어진 사람이 많이 나도록 하기 위하여
- . 사촌(沙村) : 약 450년 전 부락에 사기점이 있었다고 하여 사촌이라 불려지고 있다.
- . 화실(花實, 화곡:花谷) : 뒷산이 매화처럼 전개되었다는 뜻,
- 진주인 유씨가 읍은 '위성조우색경록(渭城朝雨 輕鹿) 객사청청유색신(客舍青青柳色新)'에서 위성(渭城)이라 했다. 위성에는 3대(臺)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삼대석(三臺石), 삼대목(三臺木), 삼대불(三臺佛)이 . 황골(황곡(荒谷), 한읍(韓邑) : 옛 고을이 있었다 하여 한읍 이라 하다가 뒤에 황골이 되었다.
- . 화창(花倉) : 고려 시대에 창고가 있어서 일명 華倉, 지금은 花倉, 고려 성종조에 의창을 설치
- 옛날에 이 곳에 화창장이 있었으며, 주막이 있었다. 원래 여기가 소보면 면소재지였음
- 너. 평호리(平湖里)
- . 평지마(평지(平地)) : 앞 들이 넓다 하여 평지마을이라 했으나 일제시대때 평호동으로 고쳐졌다.
- . 낫거리(낙거리, 개겸, 괘겸(掛鎌)) : 부락지세가 낮 모양으로 생겼다하여 붙여진 명칭.
- . 우복리(牛伏里) : 산동면과 인접, 고개가 마치 소가 앉아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 우복리

1-6. 정겨운 이름들

우리마실 주위의 우리말 그대로의 정겨운 옛이름들...

- . 각골 : 바로 앞산이다. 옛날에는 우리 큰집이 주인이었다.
- . 말바(馬岩) : 말바위, 바로 뒷산인데 8대조 산소가 있는 곳으로 안령의 성지 같은 곳
- . 고란 : 골안이란 뜻으로 우리 문중 산이 있제, 대송 고란도 있다.
- . 어시 : 소모양의 산이라 해서
- . 삭씨골 : 어시 옆의 산으로 집한채가 있던 골짜기
- . 토골 : 토끼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
- . 나무골 : 시장 바로 뒷산, 짙이 하나 있었다
- . 한심 : 고개너머의 산, 소뭍이러 많이 갔다.
- . 아래무골짜 , 우무골짜 : 갑재 밋의 산 골짜기
- . 행상집 : 중학교 근처 에 있던 행상을 보관 하던곳, 왠지 으시시 했다.
- . 송장골 : 송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조그만한 개활지에는 늪 비슷한 곳이 있었다.
- . 보뜨랑 : 관개수로의 이름, 보와 들안이 합쳐져 생긴 이름인 듯.
- . 음달도랑 : 각골 아래 신작로와 겹치는 작은 도랑, 응달이 져서
- . 아끄러 : 앞거랑, 곡정천으로 어릴때 天獵을 많이 하던 작은 시내다.
- . 고개너머 : 달천, 위천, 큰물이라 불렀던 곳이다.
- . 봉담 : 중학교 바로 아래 있던 우리 작은 논 이름
- . 한들 : 소보면에서 가장 큰 들, 엄청 넓은 줄 알았던 곳이다.
- . 들병 : 뒤안에 있던 골짜기의 움푹 패인 곳, 우기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 . 솔끄테 : 소나무숲의 끝이었나, 장터 초입의 병수형님집(재종형) 근처를 보고 그리 불렀다.
- . 궁디산 : 궁디처럼 생긴 두봉우리의 산, 암대 뒷산인데 主山이라 할수 있제.
- . 바람재 : 風嶺, 바람이 많았던 전설 같은 산, 옛날 군위 읍내 갈때 가던 길목인데 나는 한번도 못 가봄.
- . 곰재 : 곰이 살았나? 험하기 그지 없던 곳인데 지금은 평범한 고개가 되었다.
- . 정지나무 : 안령못가에 있는 느티나무, 원래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연자방아가 있었는데 못을 만든뒤 큰나무는 죽고 새끼나무만 있음.

1-7. 사람 이름

\* 참 한글의 아름다운 이름도 많았다

- . 뿌뜨리 : 9촌아집인데 오빠와 터울이 많았다. 사이에 아가 하도 많이 죽어서 목숨을 뿌뚱다고 지음
- . 꼬선(末善) : 마지막 딸이라고
- . 두리 : 뭘때매 짓는지 모른다.
- . 꼭지 : 다음에 꼭 아들 낳으라고, 우리 마실에는 없었다.
- . 허리 : 와 허린지 오르겠다 규홀인가?

\* 그리고 한자를 우리식으로 전혀 다르게 부른 이름이다.

- . 흥기 : (본명 : 현기)
- . 명기 : (본명 : 명기)
- . 개비 : (본명 : 갑이, 병갑이)
- . 비오기, 비옥이 : (본명 : 병옥이, 민병옥)
- . 맹이 : (본명 : 연규명).....

1-8. 택호

어른들은 택호를 지어서 남자는 택호, 여자는 택호+댁(띠)으로 불렀다. 우리가 소시적으로는 그집 만이가 중1정도이면 그집 택호를 짓는 풍습이 있었다. 요새는 60은 넘어야 가지는 이름

특이한 택호는

- . 끈니 : 옛장사하던 김학수 아버지
  - . 굽피 : 굽평(?)
  - . 신티(신평띠) :
- 나와의 관계택호
- . 법촌(띠) : 우리부모, 친정이 산법이어서

. 법산(띠) : 뒷집아짐, 친정이 산법이어서

. 위시(위성띠) : 재종형님, 처가가 위성

. 기동(띠) : 할매,

1-9. 아침잡쌈능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밖에 나가면 지천이 아는 사람이다. 할배를 만나면 할배 아침 잡쌈능력?(할아버지 아침드셨습니까?)가 나온다. 그게 어느 사이인가 '안녕하세요'로 변해 있다. ○○할배, ○○할매,○○아짐,○○아제를 붙이고 뒷말은 같았는데..

그때만 해도 밥이랑 쌀밥을 먹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으니까 그 인사가 만들어 질 때에는 아마도 무척이나 가난한 우리들의 선조들이었을 것이고 또한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식량이 있어 아침은 먹었는지를 물었는 게 아닌지..

점심때는 점심잡쌈능력? 저녁엔 저녁잡쌈능력?

1-10. 뉘침말 낮춤말

우리말은 뉘침말과 하대가 확실했다. 또한 중간말도 있었다.

아이들도 중2정도이면 어른이 되었다 보고 타성까지 경우, 친구의 아들이라도 그 어머니는 존대말을 썼다. 또한 그때까지 말을 놓다가도 형이면 형님으로 하고 높여주고..

요즘에야 서울말에 통일되어서 많이들 변했지만...

서울말이야 침을 들을 때는 참 상냥하고 예의 있는 듯하나 조금 지나면 한참 이야기 하다가 끝에만 '예'소리 하면 존대말로 처 주니 우리가 보면 한참 상냥의 말입에 틀림이 없다.

또한, 상민한테는 어린아이도 반말을 했는데, 동네 재실을 지키는 마름한테는 동네사람 누구든 그에게 말을 놓았다.

우리 그렇지 않았지만 동시대의 안동지방엔 물건 파는 상인들도 동네에 들어가면 어린아이에게도 하대를 받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

2-1. 갱죽

어릴 때 무척 많이 먹었던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오늘 저녁에 뭐였노? 갱죽..

아마도 지금 기억에는 수제비 비슷한 것도 넣고 식은 밥도 넣고 그리고 나물을 넣고 끓여서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된다.

근데 언제 인가부터 안 먹기 시작하더니 아예 없어진 음식이 되어 버렸다. 다른 것은 지금도 많이들 해 먹는데... 누군 갱죽카만 가난이 서러 버서 먹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가난한 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2-2. 손국시, 국시꼬랑데이(국수꽂지)

엄마는 가끔 국수를 잘 해 주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리고 긴 막대로 밀면서 국수를 넓혀 간다. 그리고 넓힐때 마다 다시 마른 밀가루를 훑으면서 국수판을 점점 넓히고..

그래서 칼로 썰어서 만든 것이 손국시이다.

울 아버지는 그 손국시가 나오면 커다란 양푼이에 국수를 한 가득 드셨다. 그래도 끈기가 없어서 곧 배고픈게 국수인가...

국수반죽을 썰때 우리는 엄마 곁에 있으면 엄마는 꼬랑지 부분을 끊어서 주는데 이걸 아궁이에 넣으면 검고 희게 익고 그리고 적당이 여기 저기 부푼 국수꼬랑데이를 맛 볼수 있었다.

주전버리거리가 귀하던 시절 그건 우리들의 훌륭한 간식거리이고 익혀서 먹으니 또한 과자의 맛이 있었다.

2-3. 무시어린잎, 배추적

우리마실은 경북의 내륙중의 내륙이라 먹을 것이라고는 풀 밖에 없었다.

무시와 배추를 갈면 어린 무침이 나온다. 이걸 속아서 비벼 먹는데 상당히 매운 맛이면서도 또한 그 나름의 맛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무시와 조선배추는 크면서 계속 조금씩 속아서 지리지(겉저리)를 해 먹는데 이게 경북 내륙지방의 비빔밥이다.

우리 지방에는 제사음식에도 반드시 배추찌집이 들어 간다.

대구를 기준해서 이남으로 오면 이런 음식을 볼수가 없다.

어느 안동사람이 서울에 처음 이사가서 배추찌집을 돌렸더니 이 이상한 음식을 잘 안먹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지 사람들도 이 맛에 들면 참 맛있다. 식으면 시원해서 좋고 구울 때는 따뜻해서 좋고

2-4. 달걀밥

달걀밥은 우리포래의 공통적인 간식거리였을 것이다.

요즘이야 달걀이 흔해 빠졌고, 또한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무서움마저 들게 하는 식품이지만, 소시적으로는 닭이라고는 장닭 1-2마리에 암탉 3-4마리를 마당에 풀어 놓아 키우는게 일반이다.

그 닭들은 알도 요즘처럼 많이 낳지 않는 토종닭이고..

그러니 달걀은 상당히 귀한 음식이었다. 암탉은 알을 넣으면 지가 알 낳았다고 '꼬꾸덕 꼬꾸' 하면서 주인에게 알리는데 이때 따뜻한 달걀은 아버지가 주로 드셨고 나도 아들이라 가끔 생으로 먹었다.

딸부자집은 우리네 딸들은...

생달걀을 먹을때 앞뒤에 구멍을 내어 먹는데 특별히 앞에만 뚫어서 드시라 아버지께 부탁하고, 그 생계란을 먹고 나면 달걀의 빈껍질속에 쌀을 넣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부엌아궁이의 남은 불 위에 놓으면 맛있는 계란밥이 완성된다.

불의 강도가 아래위가 틀리기에 그작은 달걀밥에서도 3층밥도 나온다.

2-51. 참꽃

봄의 산에는 참꽃이 붉게 핀다. 산은 민둥산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참꽃은 여기저기서 피어 난다.

공기가 좋았던 시절 봄에는 많은 먹거리가 나타나는데 그중 의 제일이 참꽃이 아닌지..

앞산과 뒷산 어디에도 참꽃은 피어 있고

어릴 적에는 혼자 가는 게 무섭다. 그래서 무리 지어 다니면서 참꽃을 따라 다니고 또한 큰아이 뒤를 졸졸 따라 다닌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참꽃 뒤에는 문디(문둥이)가 숨어 있어서 어린 아를 잡아다 간을 빼 먹는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전해오기에 어린 우리들은 참꽃이 가득한 곳이 있더라도 감히 잘 접근하질 못했다.

큰아이들은 많이 따고 작은아이들은 적게 따서.. 먹고 나면 시뻘겁고 퍼렇게 입가에 물든다.

## 2-52. 감꽃

감꽃은 산에 가지도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이다.  
감꽃이 피고 떨어지는데 그걸 짚으로 하나씩 하나씩 엮었다. 우리말로 '킨데이 킨다'라고 하였는데..  
그것도 제 멋대로 줌지는 못했다. 언제나 자기 구역은 있고 안마실에 가면 안마실 아이가 트집을 잡기도 하고  
감꽃 맛은 짧은 맛이 남아 있으며 감 맛에다 꽃 맛이 가미된 맛이고 그 꽃이 마르면 꽃감 맛도 난다.  
요새 감꽃을 우리 아이한테 줬더니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한다.

## 2-53. 뽕뽕

겨울이 가면 봄은 언제나 찾아 온다. 우리 안령(질매지) 못에도 봄은 온다.  
못둑은 겨울의 잔디와 풀들이 누런 모습에서 신록과 함께 파릇하게 변화한다.  
그 풀들 속에 뽕뽕이 있다. 지방에 따라 뽕뽕라 하기도 하는 풀의 속이다.  
잔디와 같은 모양이나 잔디보다는 크고 여러며 산풀 보다는 훨씬 작은 그 풀이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속이 뽕뽕이다.  
열매가 맺기 이전의 것이어서 매우 부드럽고 또한 맛도 있다.  
우리마을 못 둑에는 항상 뽕뽕이 가득해서 봄이 오면 아이들이 즐겨 해집고 뽕뽕 뜯기를 열중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뜯지 않은 속에서 작은 갈대와 같이 허영게 꽃이 핀다.  
그런데 요즘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뽕뽕을 찾으려 해도 발견하질 못했다.

## 2-54. 올미

난 이것의 표준어를 모른다. 또한 밖으로 나온 풀의 모양도 잊어 버렸다.  
이 올미는 보뚜랑에 많이 자랐는데 아마도 못이나 흐름이 느린 늪등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일 것이다.  
보의 풀속에서 이 식물의 뿌리에 열매가 붙어 있는데 이가 올미이다.  
맛은 물맛, 뽕맛, 고소한 맛등이 가미된 특유의 맛으로 기억된다.  
오미 가미 많이들 먹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맛볼 기회가 없어 졌다.  
시장에도 안나는 것은 물론이고...

## 2-55. 송기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여도 보리고개란 그 흑독한 봄을 보냈다.  
양식은 풍년이 되어 겨우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식구는 불어나고 일제의 공출은 많아지고 하여 자연히 초근목피를 이용하여 먹거리로 삼았는  
데 그중 송기가 대표이다.  
우리는 보리고개는 당하지 않았으나 그 잔상은 다 경험한 세대이고  
송기는 봄에 만물이 물이 오르는 시점에서 먹는 소나무 줄기이다.  
소나무의 결가지줄 잘라서 걸껍질을 낫으로 베껴내고 나면 하얀 속살이 나타나는데 그 하얀 속살이 송기이다.  
같은 세대 여러분 다 먹어 봤지요?  
한참 먹고 나면 물기는 배로 들어가고 섬유질은 계속남아서 씹히는데 껌과도 비슷하다.  
그 물기를 통하여서도 아마 많은 미네랄을 섭취가능했으리라...

## 2-56. 밀씨리 콩씨리

보리고개에는 콩씨리 밀씨리가 나온다. 씨리라 함은 요새는 수박씨리와 같이 남의 밭에서 훔쳐서 먹는 것으로 생각되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  
밭에있는 이 밀과 콩을 먹는 것을 밀씨리 콩씨리라 했다.  
좀 설익은 콩과 밀을 밭에서 그대로 걸을 태우면 그 속이 그런데로 익고 또한 열매가 그다지 딱딱하지 않아서 굉장히 맛있었다.  
배고퍼서 맛있는 것인지 맛이 있어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야다가 먹는 별미였기에 특히 밀씨리의 맛은 아직도 입가에 있는 듯하다.

## 2-57. 오디

소시적에는 니비(누에)가 농가의 상당한 부업이었다. 봄과 가을에 니비를 맥었는데 봄에 한배를 하고 가을에 또 한배를 치고 나면 뽕나무는  
대체로 가지 체로 먹이로 하기 때문에 몸통만 남게 된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인데 뽕나무가 견재해야 많이 달릴 것인데 가지가 다 잘리고 나니 열매가 많이 열릴 터이 있나?  
오디는 처음에 하얗다가 조금 익으면 빨갱게 변하고 그리고 다 익으면 검게 변한다.  
붉을 때부터 먹을 수는 있는데 새그럽고(시고) 검을수록 맛이 좋다. 더 익어 버리면 물론 맛이 없지만  
많이는 없었지만 이 또한 클때의 좋은 간식거리중의 하나였다.

## 2-58. 다래(밍)

어릴 때는 여러 가지의 곡식을 자급자족 했다. 요즘에는 쌀농사를 제외하곤 거의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촌에 가도 없어진 것이 많  
은데 왕골, 콩, 밀, 보리, 대마(삼), 뽕(누에), 피마자, 등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밍(목화)인데 이 목화농사를 지어서 그 속을 갈라서 씨를 제거하면 숨이 되어서 이불속도 하고 또한 실을 뽑아서 옷도 만들  
었을 것이고 그 열매로 綿實油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 목화의 열매가 열려서 익지 않은 푸른 열매 속을 보고 다래라 했다.  
산속의 다래와 비슷했는지 모르지만 산속의 다래를 먹어 보질 못해 잘 모르겠다.  
그 다래가 적당히 익으면 아주 시원한 맛을 가지고 있다.  
너무 어리면 안되고 너무 익으면 텁텁하고..

## 2-6. 여름

### 2-61. 깨묵(개암)

봄의 신록은 점점 푸르게 되어서 녹음이 된다.  
요즘이야 산에 들어 가려면 나무가 무서워서 산길 아니고는 잘 들어가기 힘들었지만 소시적에야 모든산들이 민둥산이고 풀만의 산에 나무  
가 듕성이 있어 산이 곧 우리들의 놀이터이다.  
깨묵은 전래동화 흑부리영감에 나오는 유명한 열매이다 겁이 나서 낮에 주었던 깨묵을 깨무니 딱소리에 놀라서 도깨비방망이를 버리고 가게  
한 그 열매이다.

나무는 오래묵(오리나무)과 거의 흡사한 잎을 가진 나무에 열리는데 걸쭉질이 굉장히 단단한 견과류이다. 그래서인지 그 맛도 같은 견과류인 호두와 비슷한 맛, 덜 익었을 때는 물맛이 많이 나고..

이산 저산 돌아다니면서 깨묵 열매도 많이 뺏는데 너무 이른 철에 따면 걸만 딱딱하지 속은 비어있느 열매만 따다.

#### 2-62. 찐쌀

햅쌀을 가지고 조상에게 인사 드리는 게 추석이다. 새로이 곡식을 수확했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추석은 중국력을 따라서인지 대개가 햅쌀을 가지고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그래서 추석 때 전혀 곡식이 아물지 않았으면 음력 9월에 추석 대응으로 조상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고, 햅쌀이 나오지 않았으니 이른 쌀을 조금 수확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조상에게 올렸을 것이다.

그게 찐쌀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양식이 빨리 떨어 졌을 때의 대응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다른 쌀보다 먼저 조금 수확하여 말 그대로 찌서 딱딱하게 만든 것이 찐쌀이다.

아주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간식거리이기도 하다.

#### 2-63. 배추뿌리

배추뿌리는 약 십년 전에 복고풍이 불때 좀 유행 했으나 요즘은 또다시 보기 어려운 품목인 것 같다.

무시(무)와는 또 다른 맛을 가지고 있다.

수년전 강화도의 순무를 먹어 보았는데 이게 토종이어서인지 배추뿌리와 무시(무)와 사이의 맛 같다.

그 순무도 육지로 나오면 무시뿌리에 더 가까운 맛을 내는 것 같고..

하여간 이 배추뿌리는 아마도 토종배추의 뿌리일 것이다.

흔히 김장배추로 알려진 개량 배추는 속이 짝 차니까 뿌리에 갈 영양분이 없는 것 같고..

속이 차지 않은 재래종의 배추는 뿌리에도 갈 양분이 많지 않았을까?

며칠 전 '씨없는 수박'의 우장춘 박사의 현대인물사를 보는데

요즘의 무시와 배추는 모두가 우박사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 때 까지 개량이 좀 덜된 품종의 뿌리는 아닐런지...

#### 2-64. 능금사기

소하고 입학 전후에 일이지....

벽지 산골에 뭐 멀끼 있나..

고개를 넘으면 달천(위천)이 나오는데 그동네 사람들은 그강변에는 사과 과수원을 했다.

논농사 밖에 없던 우리들로서는 능금이란 참 별미 인기라.

보리 농사가 끝나고 보리쌀 한되를 자루에 넣어서 가면...

낙과한 국광, 호옹(홍옥)을 한웅큼씩과 교환 해 주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43개였지...

그카다가 한참뒤 중학교 정도에는 새로움 품종 유와이(유황?)를 100원에 6개 사먹은 기억이 난다.

그 낙과한 43개의 파란 능금을 보면서 아마도 어린 마음에 엄청 행복했을끼다.

그 행복감을 자루에 넣고 굵이굵이 안령(질매지)고개 넘어 왔었지...

#### 2-7. 가을

##### 2-71. 망개

망개는 가을에 발갈게 변한다, 한여름 파란 열매를 맺는데 좀 시다, 겨울에도 그 열매는 그대로 있어서 나무하러 갈 땐 좋은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다.

약간 달삭한게...

망개는 1년생 풀로서 표준어의 망개나무와는 다르다.

생긴것은 꽃사과와 비슷하기도 하고..

##### 2-72. 대추

대추나무는 가장 늦게 싹을 틔운다.

모든 나무가 꽃피고 난 뒤에 겨우 싹을 틔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대추나무는 기르기 쉽다. 거름도 별로 하질 않아도 되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자란 뒤 망초라는 희한한 병에 잘 걸린다. 보통보다 작은 잎이 모여서 나기 시작하면 그만 그 나무는 열매를 거의 열지 못하는 병이다.

우리집에도 대추나무가 3그루 있어서 농사를 잘 지어 먹었는데 한나무씩 망초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그루만 남았다가 결국에는 패서 버려 버렸다.

더 어렵적에는 병택이네 집에 가면 아주 큰 대추나무가 있어서 아이들은 열매가 맺는 가을에 그 밑에서 바람불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돌개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널쩌라 아들이 아들이 주-라 어른아 어른아 뺏어라 아들이 아들이 울어라.'

감도 그렇지만 벌레 먹은 대추가 먼저 익는다. 푸른 대추속에서 벌레 먹은 익은 대추가 생기면서 대추나무 아래는 아이들로 북적인다.

##### 2-73. 홍시

서양에 없는 동양의 과일 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일이다. 삼실과(棗栗柿)중의 하나이고 병충해도 없어서 인지 집집마다 감나무 한그루 없는 집이 잘 없었다.

감은 둥그렇고 긴 도감, 납작하게 생긴 따감, 도감인데 아주 커서 버지(독-큰항아리)와 같이 큰 버지감, 아주 작은 축새감, 근데 감나무의 감 씨를 심으면 감이 나질 않고 곰(고염)이 난다.

아주 작은 감처럼 생긴 것인데 그 곰나무에다 감나무를 접붙이면 감나무가 된다.

가을에 접어 들면 이 감들이 슬슬 익기 시작하는데 그중 먼저 벌레 먹은 것이 발갈게 홍시가 된다.

그 흥시도 너무 되어 버리면 초가 되고...

감홍시는 아주 달아서 매우 좋은 간식이고 인기가 있는 간식인데 어느사이인가 시골의 감나무의 흥시는 까마귀도 쳐다 보지도 않는 물건이 되고 말았다.

우리집에는 감나무가 어린것 밖에 없어서 뒷집에 흥시 주으러 더러 가곤 했다.

가을에 먹는 맛도 괜찮은데 겨울에 먹는 맛은 일품이다.

차가운 맛에 그 위에 시루떡을 찍어 먹으면... 아마도 다들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루는 이갓집(외가)에 갔는데 버지감을 내놓는 것이었다.

하나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컷던 버지감...

2-74. 삭인 감

그 감은 흥시로도 물론 먹지만 익은 채로 두었다가 그냥 먹기도 하는데 가을 추수때는 새참으로 인기가 있었다. 붉게 익은데다가 꼭지부분은 먹물처럼 물들은 도감은 보기만해도 먹음직스럽다.

그걸 곱감을 만들기도 하는데 곱감을 깎고 난 껍데기도 마르고 나면 상당히 맛있었다.

또한 가을 소풍과 가을운동회의 메뉴로는 삭인 감이 인기를 끌었다.

생감을 소금물인지 물에 넣어서 오래 두면 감이 삭는데 그만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어디서고 그 삭인 감을 보질 못했다.

어데 갔노?

2-8 겨울-전체

2-81. 말

겨울이 되고 봄이 오는 늦겨울에서 초봄에 이르는 질매지의 못.

지금은 아주 작은 연못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클 때는 제법 못의 규모를 갖춘 못이라 알고 있었다.

못 독에서 그 못에 나는 말을 치는데 갈퀴를 빙빙 돌려서 못에 던져 당기면 그 갈퀴에 말이 걸려서 나온다.

때론 산쪽의 못양지(陽地)와 이쪽의 못 독에 두 사람이 갈라져서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하면서 말을 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고기잡이와 토끼잡이, 말치기 등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

그래서 항상 5살 많은 큰집 조카가 치고 나서 좀 주는 것을 얻어 먹곤 했는데 싱그러운 자연의 냄새가 나는 말..

요즘은 모든 못이 오염되어서 신선한 말이 나는 못이 잘없어서 말맛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더러는 시장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처럼 청정한 말이 있는지..

2-82. 옛

옛 머래! 옛이나 머래!

이 말이 와 욕이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옛은 신식 서양과자가 나오기 전의 유일한 전통의 어린아이 주전부리거리이다.

우리마을에는 '끈니'라는 택호를 가진 사람이 옛장사를 했는데

끈니가 옛을 만들 때 춤(침)을 발라서 옛을 만든다니 튜! 하고서 옛을 만든다니 하는 유언비어가 헹헹헹했다. 그러면서도 잘도 사 먹었다.

못쓰는 신문, 책, 고무신, 양철, 쇠덩이 등을 가지고 옛을 바꾸어 먹었다.

어떤 아(아이)는 새 신발을 가지고 바꿔 먹어서 저거 엄마 한테 꾸지라 들고 다시 바꾸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 엄마도 옛을 사 주었는데 딸이 하나쯤 없을 때는 그냥 농갈라(나누어) 먹고 귀한 아들인 내가 없을 때는 항상 밀가루가 든 독에 다 보관 해 주셨다가 나를 주시곤 했다.

그런 독에는 가끔씩 생쥐들이 빠지기도 했는데 아주 작은 쥐는 굉장히 귀엽다. 눈이 반들반들 거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쳐도 독 안에 든 쥐인 것을...

다 크고 난 뒤 딸들은 열심히 효도 하는데, 난 만날 애나 먹이고...

참 불효자는 울고 싶을 뿐이다...

2-83. 오화당

오화당(五花糖)을 아십니까?

박하사탕처럼 안은 희고 표면은 빨강, 흰색, 파랑, 노랑, 녹색등 다섯색으로 칠해져 있는 신식먹거리...

전통의 옛에 대처하는 서양식 주전부리거리가 나타났으니 오화당이다.

단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입맛, 거기에 우리 동네에도 들어 올 만큼 했으니 아마도 다들 오화당의 추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면소재지의 인근 마을에 있었으니 시장어가면 점빵도 있고 했었지만 좀처럼 시장에 가는 일은 없고 장날이나 갔셨고

각 동네마다 구판장이란게 있어서 담배하고 아이들 사탕몇개하고 간빵정도를 판것 같았다.

우리동네는 메산아집이 과부라는 이유로 담배를 팔았었고 조금 떨어진 곳 솔고테 가기전에 조합이란 이름으로 달이형님, 한기조카가 구멍가게보다 적은 조합에서 공책도 팔고 했던 것 같다.

2-84. 간빵(건빵)

'오동추야 대머리(대가리) 깎아라 군대가만 간빵 준다'

간빵! 신식과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간식거리 일 것이다.

요즘도 아주 가끔씩 사 먹곤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은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라고 가끔 행기는 과자이다.

그 때 군대에는 진짜로 간빵을 줬는지 그러니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아니면 6.25사변때 지질지도 먹을 것이 없는 우리 선배들에게 군대 갈 것을 증용하면서 이후 죽 불려지지 않았을른지...

각설하고 간빵은 맛있다.

아무리 민민한 맛이라 하더라도 빼빼나, 송기, 참꽃등 자연의 먹거리보다는 가공이 된 식품이다 보니..

이후 우리의 삶이 풍요로와 지면서 여러 먹거리들은 맛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 라면땅 : 한때 뽕뽕이 간첩사건으로 유명해져 이후 자야 등으로 발전

. 마산 땅콩카라멜, 비가, 뉴가, 산도 등등 옛과자 이름들....

## 2-85. 붕어빵 해먹기

우리의 초등학교 시절에는 전에 없었던 먹거리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붕어빵도 그 때 생겨난 즉석 식품으로 아직까지 사랑 받고 있는 식품이다.

그때 도이(병도)네 집에 이 빵굽는 기계가 있었는데 아마도 장이 서는 날 붕어빵 장사를 했을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이제 도이네집 기계로 붕어빵을 구워 먹자고 각자가 집에 가서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 밀가루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웅게 구운 붕어빵을 만들지 못했다.

푸리죽죽하고 좀 덕익은 맛의 붕어빵을 먹은 것 같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년 얼마나 했겠노?

그 날 저녁에 아무한테도 이야기도 안 했는데 엄마는 이일을 알고 있었다.

밀가루를 두 손에 담아서 그걸 대나무 받을 지나 도이네 집까지 가는데 조심도 했을 것이지만 아마도 질질 흘렸을 것이다.

그 당시 시장에는 붕어빵 말고도 신식 먹거리가 나오곤 했다.

아이스끼끼 : 촌의 시장에서도 더러 나오곤 했다.

팔빙수 : 손기계로 얼음을 돌린 다음 여러색깔이 나는 물을 석어서

## 2-86. 튀밥

설이 되면 즐겁다. 우리의 선세대는 먹을 주식이 부족했고 우리는 항상 간식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 살은 지라 새로운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명절이 가장 많았다.

겨울이 되면 장터(시장)에 튀밥장사가 온다. 기계 아래에는 장작을 피우고 그리고 그 안에 쌀을 넣고 손으로 풍로를 돌리면(나중에는 모터로 바뀐다) 한참 뒤에 키를 풀고 젓히는 순간 '뽕'하는 굉음과 연기가 자욱하면서 아래로는 튀밥이 만들어진다. 멀리도 몇개씩의 튀밥이 떨어지곤 하기도 한다.

그 땐 주로 쌀 한되를 가지고 가면 튀밥을 튀겨 주는 형태..

명절이 가까우면 가끔씩 마을까지도 와서 튀밥을 만들어 주곤 했다.

설이 지난 다음에는 남은 떡국으로 튀기기도 하고 강냉이(옥수수)도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역시 주는 쌀 튀밥이다.

아마도 이게 나중엔 뽕튀기로 변하지 않았을까..

딱딱한 쌀이 부드럽게 변하고 게다가 사카리(사카린)가 들어가 단맛도 듬뿍 들어서 아주 맛있는 과자를 마음껏 먹는 유일한 시기이다.

우리집은 작은 집이어서 설에 떡국은 잘하지 않았지만 튀밥을 항상 했다.

## 2-87. 강엿, 강정

설이 되면 또 하나 하는 것이 단술과 강엿이다.

단술은 일반 식혜와 같은 것이고 가끔 다른 집에서는 석감주라 하여 싹인 맛의 감주를 만들기도 했다.

가장 맛있는 것은 역시 강정이다.

강정을 만들려면 참 복잡하다. 먼저 강엿을 고아야한다.

밥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고아서 강엿을 만드는데 그 정확한 제작방법은 모르겠다.

그 강엿을 만드려면 부엌에선 등거리로 몇시간에 걸쳐 푹 고고...

그러다 일순간에 강엿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부순물로 단술이 나온다.

그 강엿을 더 고아서 딱딱한 엿을 만들기도 하나 대개는 튀밥을 가지고 쌀강정을 만든다.

솔뚜껑을 뒤집어 놓고 튀밥을 강엿과 반죽한 뒤 평평히 한 다음 강정을 만든다.

쌀강정, 콩강정, 깨강정, 들깨강정, 강냉이강정...

이 명절 언제 이렇게 많은 과자를 한꺼번에 푸짐히 먹을 수 있을까?

몇해가 지나자 방아간에서 강정을 대신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고...

## 3. 놀이

### 3-1. 땅따먹기

지금은 촌의 마당도 모두 콘크리트로 변해 버렸다. 흙이 없어진 것이다.

흙이 없어지고 나니 나락을 말리기도 편하고 깎기지 않아 자동차 주차도 편하고, 청소도 편하다.

그러나 반대를 보면 흙의 기운을 좀 덜 받지 않지 않을까?

땅따먹기는 남녀 모두가 즐기는 놀이이다.

주로 마당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너른 평평한 땅이 필요하다.

먼저 커다란 사각형을 그린다. 두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자기의 집은 손바닥 뽕만큼 둥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사금파리로 자기 집에서 출발하여 하나 둘 세번 튕겨서 다시 집에 들어오는데 오는 그 선을 이어서 자기 집으로 삼고 덤으로 자기집에서 손바닥을 편 만큼의 땅을 재어서 자기 땅으로 한다.

세번 튕겨서 자기집에 못 들어가면 그 땐 자기집을 못만들고...

둘이서 열심히 무주공산의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나면 상대방과 땅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무주공산이 없어 지면 완전히 땅의 경계가 생기는데..

이 때부터 땅따먹기에 들어 간다.

자기 땅 깊숙한 곳에 사금파리를 세워 두면 상대방을 자기 땅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번 튕겨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튕겨서 손바닥 뽕수 만큼 뽕을 상대방 땅으로부터 빼앗기를 하는데 한사람의 땅이 모두 빼길 때 까지 한다.

### 3-2. 비석치기

땅따먹기에 비해서는 좁은 땅이 필요하다.

마당이나 골목에서 하는 놀이인데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하는 놀이이다.

양쪽에 선을 두개 긋고 진쪽이 10cm내외의 사각형 돌을 한쪽 선에 놓으면 이긴 쪽에서 처음에는 던져서 맞추고 그리고 나서 한쪽발(깨금발)로... 그 계급이

#### 1. 그냥 돌을 맞추기

2. 한번 깨금발로 뛰어서 차기 : 3번까지
3. 양발사이에 넣어서 맞추기
4. 발등에 돌을 올리고 가서 돌을 맞추어 넘어뜨림
5. 양 정강이 사이에 넣어서 맞추기
6. 양 허벅지 사이에 넣어서 맞추기
7. 배, 가슴, 목 밑, 양볼, 이마, 머리에 돌을 얹어 돌을 넘어 뜨림.

특히 가슴에 돌을 얹고 갈 때 동요를 부른다.

'유수리 콩알 푸드득...' 무슨뜻인지 모르겠는데 평이 날라 가는 시늉과 웃기면서 상대를 방해하는 동요이다.

### 3-3. 다마치기

소학교 이전에 우린 울집에서 곧잘 다마(구슬)치기를 했다.

웃집과 경계에는 자연의 흠벽이 있었는데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것이 갈아서 다마만드는데 그만 이었지..

춧귀, 봉, 엇귀, 봉, 엇귀, 봉, 덴끼, 봉, 엇귀, 봉, 엇귀, 촛귀로 다가면 풋도라(풋 호랑이?)가 되지 그리고 도라가되고 그리고 도라는 상대의 다마를 맞추면 이기지..

일본어와 한국어가 짬뽕이된 다마용어..

유리도 아닌 흙구슬..

그러나 난 전혀 불편한 점을 몰랐다.

근데 유리구슬이 나오니까 그 흙구슬을 상당히 불품없는 것이 되고 말았지...

행복이란 모르는 것에서, 소탐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 같다.

### 3-4. 딱지(때기)치기

딱지와 때기

집에서 공책이나 못쓰는 신문 책을 접어서 만든 사각형에 내부에 X자인 것은 때기, 그리고 점뺑에 파는 것은 딱지이다.

돈이 별로 없었던 관계로 주로 때기 치기를 하였는데 이 놀이는 우리 아들도 하고 있는 유구한 전통의 명맥이 아직 있고 있는 놀이다.

딱지 또한 모습만 조금 바뀌어 있지만 우리 아들도 로봇 딱지등을 가지고 지금도 놀고 있다.

당시의 딱지는 사각과 둥근 딱지였는데 나중에는 거의가 둥근 것으로 통일 되다시피 하였고..

주로 계급(별 몇개)으로 딱지를 따곤 했다.

### 3-5. 끈(대장끈, 가두기)

끈은 주로 소 먹이러 가서 뜨곤한다.

끈은 원시적인 장기에 해당하는 대장끈과 가두기를 하는 원형끈 두가지가 있었다.

바위에다 오각형 비슷한 홈을 만들고 거기에 대장, 중대장, 소대장 각1명, 졸병 2명등 다섯명의 병사가 있고 밖으로 나가면 田자형태의 활동 무대가 있는데 누가 먼저 다 잡아먹으면 이긴다.

가두기 끈은 원형 田 에다 또한 자기 홈에는 3개의 말이 있는데 잡아 먹는게 아니고 가두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놀이이다.

소먹이러 가서 편편한 바위 위에 끈판을 그리고 그리고 돌맹이 적당한 것을 가지고 와서 끈을 두었다.

### 3-6. 공개(공기)

전 국민이 놀아 본적이 있는 공개(공기놀이), 주로 여자들이 더 많이 하였다.

요즘까지도 전래되고 많이들 하는 놀이..

그러나 요즘은 다섯개의 공개만 한다.

물론 우리도 다섯개의 공개를 했지만 요즘처럼 플라스틱이 아니고 돌이다.

그리고 여러 잔돌을 많이 모아서(약 100여개) 원을 그리고 그 위에다 몰아 놓고 누가 돌을 많이 가져 가나 하는 놀이이다.

먼저 하는 사람은 돌 한개를 든다 이때 다른 돌에 흔들리면 안된다.

그리고 돌을 손등에 얹어서 돌무더기에 치면 몇개의 돌들이 튀어 나오는 데 요즘의 공개 처럼 하나 하늘로 던진 사이 땅의 공개를 잡고 하늘의 공개를 잡으면 된다.

이를 반복하되 다른 돌에 건들리면 실격이다..

### 3-7. 수지(수수께끼)

수지가 수수께끼가 되고 요즘은 퀴즈가 되어버렸다.

소보말은 서울말에 젓고 서울말은 미국말에 진 결과이다.

클 때의 수지는 참으로 순박하다...

감은 감인데 몬 먹는 감은? 영감, 땡감, 뺨은감,

몬 먹는 밥 80가지? 흰밥, 서른밥,

개는 갠데 날라 다니는 개는? 솔개

밤은 밤인데 몬 먹는 밤은? 꿀밤

그러다가 중학교가 되어서부터 일본어 시리즈

. 내뺨또니까무라 - 일본의 마음 좋은 사람

. 비사이로 막가 - 가장 애빈(야윈) 사람

. 깡이마또까 \_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

. 왕대포 - 중구에서 술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참새시리즈, 식인종시리즈, 정신병자시리즈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 3-11. 불놀이

보름이 되면 전국적으로 쥐불놀이를 하고 달집 태우기 놀이를 한다. 전래의 풍습으로 남은 놀이,

겨울이 되면 논투렁 태우는 일은 그냥 일반적인 놀이가 되었다.

그땐 성냥도 잘 없어서 집에는 보통 덕용성냥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거의 한쪽 면을 찌고 그리고 성냥알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을 놓았다.

어쩌다가 작은 광성냥을 가지고 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추운 겨울날 그 불을 쬐면서 그냥 불을 놓는 게 즐거웠는 모양이다.  
산에 가서도 소나무에 불을 질러 놓고 그위를 미끄럼 타는 위험한 놀이도 많이들 했다.. 그러다가 불이 퍼져서 산불이 되기도 하고..  
보름이면 말바(馬岩)에 가서 불을 피우기를 열중하고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누구에 의해서 인지 모르지만 말바 산을 태운 일이 있는데 주인  
이 윤기가 좃차와서 아이들을 다 잡겠다는 걸 마구 내뺌서 호이(병호)네 집 뒤 안에 숨은 적이 있었다.  
좀 뒤에 숨을 헐떡이면서 윤기가 좃차와서 "여 아들 안왔능교?" "안왔는데..."  
그때의 헐떡이면서 두근거림이 아직도 느끼는 듯하다.  
또한 불은 강통에다 넣고 돌리기도 많이 했는데 그건 땀감이 적은 대구의 아이들이 더 많이 한 것 같다.

### 3-12. 강통차기

숨바꼭질이 발전 된 것이 강통차기이다.  
숨바꼭질은 그냥 아이들만 찾으면 되는데 강통차기는 오니(술래)의 진지에다 강통을 놓아 두고 찾다가 누군가 강통을 차버리면 찾긴 아이들  
이 모두 다시 숨는 놀이이다.  
촌의 골목은 구비 구비 이고 또한 은폐물이 무수히 많기도 하여 골목에서 허기에는 참 좋은 놀이이다.  
언젠가 메산아짐네의 영숙이가 오니(술래)였었는데 내흔자 못 찾은 상태에서 내가 달려가 강통을 찬일이 있었다. 억질러 다 찾았던 영숙이는  
그만 울어 버렸다..  
그 뒤로는 몇명 이상만 찾으면 되는 것으로 강통차기가 진화 했던 것 같다.

### 3-13. 나무오니

안령못 귀퉁이에는 정지나무(정자나무: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우리5가 자랄 때는 30-40년생 10여그루가 있었다. 원래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연자방아가 있었다 한다.  
그러나 못이 생기고 母木은 죽고 子木만 남게 되었다.  
지금은 도로 가의 느티나무도 모두 길을 넓힐때 없어져 버렸다.  
우리들은 주로 도로 가의 느티나무에서 나무오니를 했는데 아마도 올라가기가 더 쉬웠을 게다.  
술래(오니)는 눈을 감고 오니(鬼 일본발을 오니)가 아닌 사람은 내뺌는 놀이이다.  
나무 위에서 하는 놀이라 위험 천만이지만 잘도 놀았다.  
가끔은 땅에 떨어진 아이들도 있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못쪽의 느티나무는 아래가 물이라서 옷만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때 밍기(민민기)가 나무오니를 가장 잘 하였다 나무를 타는게 거의 원숭이 수준으로 날라 나녔으니까..

### 3-14. 찰떡치기

주로 골목이나 모래사장에서 하는 놀이이다.  
오니(술래)는 양손목을 발목에 잡고 말자세를 한다. 그럼 오니가 아닌 애들이 차례로 타넘게 되는데 그것도 순번에 따라 처음 하는 왕(첫째  
아이)의 말에 고대로 해야 한다.  
"찰떡치기" 하면서 타넘는다 손바닥은 짝핀형태..  
소발넘기 : 손을 주먹 쥐고서  
개발넘기 : 개발처럼 다섯손가락을 등에 대이는 주먹형태  
방구밑에 새알줍기 ; 불알을 만지고 타넘기

### 3-15.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는 여자들이 주로 하는 놀이인데 우리 동네서는 종목에 따라 남자들도 했다.  
여자들은 무슨 노래인지 잘 기억 나지 않으나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중간에서 노는 놀이  
그리고 우리동네는 남 녀가 같이 하는 고무줄 놀이가 있었는데 고무줄 넘기이다.  
쉽게 말하면 제조와 비슷한 것.  
먼저 양쪽의 오니(술래)들은 발목, 정강이, 허벅지, 허리까지는 고무줄을 올리고 상대방은 그 고무줄을 닿지 않고 타 넘기.  
그리고 가슴, 목, 얼굴, 머리, 머리 위에도 한뼘 여기에는 손을 바닥에 대고 발로 고무줄을 넘는 놀이이다.

### 3-16. 대장놀이

여름이면 밤에도 별로 춥지 않으니까 마을 여기 저기를 돌아 다녔다.  
대장놀이, 전쟁놀이, 칼싸움..  
요즘에도 아이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칼을 가지고 칼싸움을 한다.  
이순신장군 전기에도 나오는 놀이이니 인류가 생겨나고 서는 아마도 죽 있어온 놀이 일 것이다.  
우리들은 주로 나무로 칼싸움을 하곤 했다.  
오래(오리)나무가 적당히 굵고 곧아서 많이 이용되었다.

### 3-17. 까기

까기 또한 인류가 탄생하고서 지금까지 이어 온 놀이이리라.  
다만, 요즘은 태권도다, 합기도다 하여 절도 된 무술로 배우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발차기를 하였는데 이게 까기이다.  
우리 뒤안으로 넘어가면 등병이 있었고 그걸 넘어가면 양지 바른 곳에 무덤과 잔디가 있었다.  
적당한 높이의 무덤도 있고 잔디도 있고..  
까기 하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여서 인지 여기에서 많이들 하였다.

### 3-18. 씨름

소먹이러 가면 소는 산으로 보내고 나서 그 뒤로는 그냥 논다.  
강 옆이면 목욕도 하고 산이면 끈도 두고, 공개도 하고..  
목욕을 하다가는 씨름도 무척 많이들 했다.  
당시만해도 물은 맑고 강변의 모래는 그야 말로 눈부셨다.  
이런 평소의 씨름 실력이 있어서인지 나는 초등학교때 씨름선수가 되어서 잠시 활약하기도 했었다.

물론 서너번 연습한게 고작이지만..

중학교 1학년때 체육시간에 반씨름대회를 하였는데 짚수팀, 훌수팀의 대결로 이긴 사람이 계속 시합하는 씨름을 하였는데 무려 15연승하여 우리 짚수팀이 이긴 것이 기억 속에 있다.

그때부터 임찍정이라 부르기도 했다.

3-19. 만세(가이생, 오징어만세)

일정하게 땅에 그림을 그려 놓고 하는 놀이이다.

"가이생" 대구에선 "가생"이라 한다. 일본말 습戰(がっせん : 전쟁)에서 나온지도 모르겠다.

오니가 서는 긴 줄, 그리고 이긴자가 있는 넓은 줄 2-4개가 있어서 처음 시작해서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 가는데 아무 곳이나 오니의 손에 닿으면 지는 게임이다.

4명, 6명 정도가 편을 갈라 하는 놀이이고..

어릴때 누나와 같이 가이생하다가 어린관계로 오니 줄에 영숙이와 같이 서서 하다가 누나가 중간으로 내달리는 바람에 영숙이 머리와 내 입술이 박치기 하여 나의 입술은 아직까지 그때의 상흔이 남아 있다.

그때 누나는 아버지 한테 꾸지람 들을까 무척 조바심을 냈다 한다.

오징어 만세(수루메 만세)는 오징어처럼 생기게 그려 놓고 목 근처를 넘어 가면 '어른:이 되는 놀이 인데 이 외에도 여러 만세가 있었으나 기억에 가물 거린다.

아마도 수십, 수백년을 이어 온 놀이 일 것이다.

그냥 사라지고 마는 놀이들..

컴퓨터와 과외 그리고 기껏해야 어린이 놀이터,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잘 놀지도 않는 우리네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하다.

3-21. 동대문(요요이는 사꾸라)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하면서 잡아서 오니(술래)를 시키는 놀이.. 그러나 이것은 표준 교과서 놀이이고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

사꾸라 사꾸라 요요이는 사꾸라와 내와같은 코끼리 이사야 이사야 도모도모니...

일어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 어디까지가 일어인지 너무 짬뽕이 되고 말았다.

櫻, 櫻, 代代木の櫻(사꾸라 사꾸라 요요기도 사꾸라)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3-22. 이(참외)따먹기

할마이 할마이 어데 가는공? 이따머로 간다..(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참외 따 먹으로 간다)

하면서 줄이어 있는 이를 따먹는 놀이.

오니(술래)는 할마이(할매)

나머지는 일렬로 하여 대장의 허리에다 양손을 깎지끼어서 지네처럼 길게 이어 줄을 만들고.

할마이 하고 대장하고 서로 이(참외)를 따먹으려, 못 따먹게 하는 놀이이다.

긴 줄로 이리 저리 하다가 어퍼지기도 하고 탈락하여 오니(술래)가 되기도 한다.

3-23. 아까스라이

이것도 또한 일어의 잔재라 생각하는데 그 어원은 찾을 길이 없다.

기본적으로 4:4 8명은 있어야 하는 놀이이다.

계급은 아까, 쓰라이, 아우, 차 4계급이고 아까와 쓰라이를 제외하고 아우와 차는 몇 명이해도 상관없다.

아까는 쓰라이 한테 잡히면 끝이 난다. 아까는 아우와 차를 이기고 또한 포로를 재생 시키고

아우는 아까한테 지고 차와 쓰라이 한테 이기고

차는 쓰라이만 이기는 대신에 타 진지의 포로를 터치하면 다시 재생 시킬 수 있고

쓰라이는 아까만 잡으면 이긴다. 그러나 다른 이들한테는 진다.

아까와 쓰라이가 가장 중요하여 그 중에 똑똑하고 발 빠른 애를 시킨다.

그리고 처음 상대편의 계급이 뭔지를 알아 오는 사람은 주로 아우가 했다.

3-24. 시겟또(썰매)

우리의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많이 추웠었다.

요즈음은 얼음이 어는동 마는동 하지만, 우리 어린 겨울은 초가 위에 눈이 오면 그것이 주렁주렁 고드름이 되어서 그걸 얼음과자로도 먹고 눈이 오는 눈 위에는 개들이 달기고 눈이 녹는 양지의 눈독에는 비둘기가 모이를 쪼던 겨울 이었다.

시겟또는 물론 스케이트의 일본어화한 것이리라.

보통은 눈이나 보뚜랑, 음달(응달)도랑, 그리고 좀 커서는 알렘못에서 시겟또를 즐겼다.

못에 갈 때는 부모님이 걱정을 하기도 하였는데 가끔씩은 못의 숨구멍에 사람이 빠지기도 하였다.

언제인가 장터의 5년 선배인 창구라는 애가 빠졌는데 미끄러져 올라 오던 빠지고 빠지고 하다가 겨우 어른의 도움으로 올라온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시겟또는 보통 발 두개에 조져 앉아서 타는 것이다. 발의 갈은 주로 물통의 밑을 사용했다.

그리고 손잡이의 끝은 못을 이용하고..

좀더 고수들은 발 시겟또를 타는데 소위 스케이트이다. 물론 소나무 밑에 칼을 대고 그 위로는 고무로 고정을 하여 탔다.

안마실에는 5년 선배인 청기가 진짜 스케이트를 타고 아주 폼을 잡고 탔는데 그 모습이 그리 부러울 수가 없었다.

3-25. 지럽자리(활쏘기)

촌의 초가를 지을 때면 석가래를 하고 그 위에 지럽자리를 덮고 그 위에 매년 짚을 갈았다.

그 지럽자리는 삼나무를 베고서 찌면 삼베의 원료가 되는 껍질을 베끼고 나면 그 몸통이 남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데 사용하였다.

그 지럽자리는 아주 가벼워서 아이들은 그것을 화살로 이용하여 활놀이를 하였다.

활을 주로 대나무로 만들고, 화살촉 또한 대나무로 만들지만 화살대는 언제나 지럽자리이다.

방금 자른 대나무에 비해 가벼우니까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리라.

지렁이들은 그냥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을 빼서 쓰곤 했는데 집을 지을 때 상당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빼 써도 별 이상이 없었던 모양이다.

### 3-26. 땅치기

안령못에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땅치기이다.

쉽게 말해 아이스 하키이다.

모두들 지작대기 하나씩 들고서 못의 이쪽과 저쪽에 골대를 만들고 하는 아이스하키

다만 스케이트를 신지 않은 맨 신발에 스틱은 지작대기라는 게 틀릴 뿐이다.

얼음 위에서 하는 땅치기는 매우 미끄러워서 실수가 연발이다.

그래서 더 재미 있었는데 지 모르고.. 또한 미끄러움을 탈수 있어서 호사의 두가지를 충족 시켜 주어서 겨울놀이로서 많이들 즐겼다.

### 3-27. 영굴

국민학교 2-3학년때였다.

우리 오리나 되는 거리를 맨날 등하고 했었지

굽이굽이 흐르는 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두개 있었다

그 다리는 나무로 기둥이 되었고 위에는 구멍이 나있는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사람 한사람이 건너기 알맞은 다리제..

오미 가미 우리 장난을 추기도 했고 달리기도 했고

다리를 건너면 소보에서 가장 너른 "한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머리에는 소나무 밭이 있었지

우리 거길 지날때면 늘 영굴을 파곤 했었다...

모래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손과 나무가지로 흙을 파고

그위에다 작은 나무가지 두개를 걸치고

그위에다 짚을 얇게 덮은 다음

흙을 살짜기 덮어 두곤 했제

가끔씩 영굴안에는 똥을 누기도 하였고...

어느날 영굴을 파놓고 우리 마을로 향하고 있었는데

약 50m 앞에서 30대 남자가 신사복을 입고 우리와 교차 했었지

그리고 우리가 파놓은 영굴에 발을 헛디디고...

우리 알게 모르게 마을을 향해 달아나고..

### 3-28. 목욕하기(고개너머), 모래놀이(모래물먹기)

소를 먹이러 가면 으레 목욕을 하지만 가끔은 소먹이는 것과 상관없이 말바를 넘어서 목욕을 가곤 하였다. 지름길로 간다고 말바를 넘어서 가는데 그 험한 60° 정도의 경사면을 넘어 갔다 오면 목욕하고 시원함은 금세 없어져 버림에도 그 지름길을 선택했다.

가끔은 암마(안마실)를 통해 대루무(큰바위)로 갔었는데 그 길목에는 추자나무(호도)가 있었고 산소도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새로 나면서 없어져 버렸다.

아이들의 여름은 물만 있으면 좋았다.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고, 고기 잡을 때는 그 흔한 반대(죽대)도 없이 그냥 손으로 잡았다.

그럼에도 손을 돌 사이로 나무뿌리 사이로 들어 가면 송어(붕어)와 피래미(피리), 남조래이(남자루), 갈조개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그 강물은 못 먹고 모래밭으로 나와서 모래를 파면 물이 금방 나오는데 처음은 흑탕물이다가 점차로 맑아 진다.

그 위에다가 자기의 침을 뱉으면 퍼지는 걸을 보고 물이 깨끗함을 알아서 마시곤 했는데 그 맛은 비린내가 난다.

모래 밭에서 두꺼비집을 짓기도 하고....

### 3-29 통태(굴렁쇠)

이외에도 우리는 무수한 놀이들을 가지고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마도 그것은 길게는 수천년이 이어져 온 놀이일 것이고 짧은것은 우리가 창작해서 만든 놀이 일것이다.

통태는 표준말로 굴렁쇠이다.

통근 원은 아주 좋은 것은 철근을 이용하는데 가장 이용하기 쉬운 것은 물지개의 물통 아래 부분이다.

이것은 시곗포의 칼로도 이용되는 등 많이 재활용된 물품이다.

통태를 굴리는 것은 굵은 철사나 대못을 나무에다 박고서 통태를 구불린다.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 3-31. 참새잡기

참새는 가장 흔한 새이다. 가장 흔한 꽃은 참꽃..

참새는 농촌에 지천이었다. 지금은 공해 때문에 많이 줄었다 한다.

겨울의 참새는 먹이 감이 아무래도 줄어 든다.

마당에 쌀이나 곡식을 뿌려 놓고 고추 말리는 싸리나무로 만든 삼태기(?)를 작대기 하나에 고정시키고 그 작대기에 줄을 메 달아 방 안에서 구멍으로 보노라면 진짜로 참새가 와서 모이를 먹는다.

워낙 많아서 금방 날아 왔다 가고 하기를 반복하다가 찰나에 당기면 운이 좋아서 몇마리를 잡을 수가 있다. 참새는 성질이 급하여 그 잡은 놈을 키워 보겠다고 상자 속에 넣어 두면 하루가 지나자 죽어 버린다. 답답해서 못 사는 것이지..

겨울밤에 짚을 쌓아 둔 곳이나 초가의 지붕아래의 구멍에 참새 집이 있다.

낮에 집을 확인한 다음, 저녁에 후레쉬를 들고 들어가면 꿈쩍 말아 이다.

그땐, 잡는 우리는 재미 있었겠지만 잡히는 참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

### 3-32. 비둘기잡기

비둘기 또한 흔한 텃새이다.

산비둘기도 겨울이 되고 눈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들 눈으로 내려 와서 눈이 녹은 양지 바른 곳에서 먹이를 구하곤 했다.

나쁜 사람들은 그를 잡으려 하고  
눈이 어느 정도 녹는 곳 양지바른 곳에 모이를 뿌려 두면 비둘기는 모인다.  
그 주위에 쥐들을 놓아 두면 으리한 놈들이 가끔씩 걸리곤 했다.  
나도 하루는 쥐들을 놓아 두고 기다리고 있는 "탁"하는 소리와 함께 비둘기는 날아 가 버렸다.  
가까이 가 보니까 부리가 부러져 있었다.  
그 비둘기는 그러다가 죽겠지...  
먹지도 못하는 것을 괜히 죽인 마음이 후회스러웠다.

### 3-33. 잠자리(남주리)잡기

잠자리는 우리말로 남주리라 한다.  
집주위의 집남주리.. 이놈은 주로 잘 쉰다. 암놈은 하늘색 숫놈은 황, 흑노 얼룩무늬..  
고추남주리 빨갱다. 주로 논이나 집 주위에 놀며 가지에 얹아 잘 쉰다.  
이놈들은 손으로 눈 주위를 뱅뱅 돌아가게 해서 잡곤 했다.  
미물남주리 주로 하늘을 휩새 없이 날아 다닌다. 잡을 때는 빗자루를 사용했다.  
가끔씩은 시집보낸다고 뒷 꼬리를 자르고 그 뒤에 작은 나무가지를 넣어서 날아 보내곤 했다.  
못에 가면 장수남주리가 있다, 얼룩무늬이고 이 놈은 못남주리만큼 굉장히 크다.  
못남주리, 집남주리 암놈과 와 비슷한 색깔인데 생겼는데 굉장히 크다. 암놈은 초록색 숫놈은 하늘색,  
못에 가서 빗자루로 못남주리 암놈을 잡고 그리고 그놈의 다리에 실을 묶어  
"부털 부털 암놈왔다 부털 부털" 하면서 암놈을 날려 보내면 우습게도 숫놈이 붙었다.

### 3-34. 매미잡기

매미를 잡을 때, 요새는 매미나 잠자리 모두 잠자리 채로 잡지만..  
소의 꼬리 털을 하나 뽑아서 울무 처럼 만들고 그걸 대나무 끝에 매고 매미가 우는 곳으로 가서 매미를 즐기는 것이다.  
소털은 투명하여 매미가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잡을 때는 주로 참매미 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씨롱매미라 불리는 작은 쓰르라미가 많은 것 같다. 맴맴.... 씨롱씨롱...

### 3-35. 고기잡기

어릴때의 물은 맑았다.  
우리동네의 앞에는 작은 개천이 흐르는데 아끄령(앞거렁)이라 한다. 정식명칭은 곡정천..  
그때의 아끄령에는 모래도 있고 초래나무(버드나무)도 많고 물도 제법 많아서 고기들이 상당히 있었다.  
큰아이들은 물론 반대(죽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우리들은 그냥 손으로 고기를 잡았다.  
송어(붕어)는 숨는 습성이 있어서 주로 나무의 뿌리나 돌사이 그리고 진흙의 구멍에 들어가면 손맛을 느낄수 있고 피라미등은 쫓다가 은폐물  
에 숨으면 잡곤 하였다.  
피라미의 습성을 먹주라 하는데 혼인색을 띄면 매우 푸르려 전혀 피라미와는 별종으로 보인다.  
이놈은 매우 성질이 급해서 쫓으면 빨리 달아나다가 금방 지친다.  
이때 잡으며 의외로 쉽게 잡을 수가 있었다.  
가끔은 메기(미기)등도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로 고개너머의 달천(위천)의 큰물에 사는 것이여서 작은 아끄령에는 잘 나타나질 않은 물고  
기였다.

### 3-36. 모래미

우리 아버지는 고기고 생선이고 잡수시는 것을 좋아 하셨지.  
그런데 영 고기 잡는데는 재주가 없으신 것 같아. 낚시고 뚝고간에 고기 잡아오시는 걸 한번 보질 못했거든..  
어느날인가 7-8세쯤되던 해 난 엄마와 같이 아끄령(앞거렁:곡정천)을 건너오게 되었다.  
아끄령은 위천과 달라서 강이 좁고 기껏해야 무릎정도의 깊이인데 그때만해도 맑은 모래와 어울려져 있었다.  
오는데 발밑에서 간지럼과 움직임이 감지되는거야  
바로 모래미(모래무지)떼들이었다.  
엄마는 강을 건너 기다리고 나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린 손으로 팔뚝만한 모래미를 엄청 잡았다.  
쫓다 같은 모래미는 모래속에만 숨어 있어서 그 어린 인간에게 거의 일망타진 되어 버렸지....  
그날 그모래미는 찌져 먹었겠제? 난 그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듯했지...

### 3-37.불발기

여름철이 되면 비가 오락 가락 하는 날씨가 많다.  
비가 오고 나면 불이 불어 나고 하루쯤 지나면 흙탕물이 진정 된다.  
그때 아끄령(앞거렁)에서 불발기 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다.  
큰물이 오고 나면 큰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 온다. 좁은 물줄기인 이 아끄령에도 큰 물고기들이 들어 왔다가 물이 빠지면서 하나하나 큰물  
로 내려 간다.  
불발기를 하기 위해선 한말정도의 석유, 숨으로 뭉친 햇불이 필요하다.  
밤 10경에 불발기가 시작된다.  
한사람은 석유를 들고, 한사람은 햇불, 한사람은 반대(죽대), 한사람은 고기통 4명이 최소 한조이다.  
고기는 빛을 향하는 성질이 있어서 밤이 되면 힘을 못쓴다.  
빛을 따라 오다가 반대(죽대)에 걸리면 그재야 자기가 그물에 걸린걸 알고 푸드득 거린다.  
잔 물고기는 천치고 한밤중을 돌고 나면 가물치들도 5-6마리 걸질 수가 있다.  
시커먼 고기가 똥똥 떠내려 오다가 반대에 걸리는 그 모습은 사냥이라는 인간 본유의 특성과 맞물려 짜릿함을 가져다 준다.  
새벽이 가까우면서 한바케스의 석유는 다 없어지고 대신 한바케스의 고기만이 남는다.

### 3-38. 미꾸라지잡기

가을에는 미꾸라지가 많다.

가을,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면 미꾸라지 들도 살이 포동포동하게 찰게 된다. 그 때 미꾸라지를 먹어야 가장 맛이 있다 하여 한자로는 추어(鰍魚)라 쓸지 모른다.

한들(큰들)을 가로 지르는 보뚜랑(보)에는 여름내 물이 흐르다가 가을이 되면 물길이가 줄어 들게 된다.

그 물들이 줄어 들게 되면 물은 도로와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터널을 놓게 되는데 그 곳이 깊이 설계되어서 물이 깊고, 자연 미꾸라지들은 그리로 모이게 된다.

이때가 미꾸라지를 잡기가 가장 좋은 때이다.

그 보의 터널은 큰아이는 들어 가기가 좋지 않아 작은 아이가 적임인데, 그 임무를 두살 적은 5촌 조카인 해기가 잘 해 냈다.

밖에서는 그저 반대 하나만 대고 반대편에서 해기가 미꾸라지를 몰아 넣어서 금방 한바케스를 잡을 수가 있었다.

### 3-39. 개구리잡기

개구리, 참 친숙한 놈이다. 어릴 때는 매우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개구리가 일익을 담당했었다. 그 때는 참개구리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중 색깔이 푸른 것보다 살색의 참개구리를 더 선호 했다. 보뚜랑에 주로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므로 오미 가미 꿩초리로 개구리를 잡았었다. 버드나무로 꿩초리를 만들고 낮을 가지고 다니면서 꿩초리로 때리면 파르라니 근육의 떨림이 있는 개구리의 뒷다리를 끊어서 구워 먹곤 했다. 요즘 생각 하면 허리를 자르는 잔혹함은 그 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잡았던 것 같다. 가끔은 재미로 버들강아지로 개구리를 낚기도 한다. 버들강아지를 빼서 그 위에다 춤(침)을 바르고 개구리 앞에다 흔들 거리면 뭇 움직이는 것은 다 먹는 개구리는 이내 그걸 문다. 그리면 즉시 당기면 우야다가 운이 나쁜 개구리들이 잡히곤 하였으나 낚시가 아닌지라 많이들 도망 갔다. 다만 물리는 재미로 가끔씩, 버들강아지 낚시를 하곤 했다.

### 3-40. 토끼,꿩(꿩)잡기

토끼와 꿩은 겨울의 대표적 사냥 감이다.

늑대와 여우, 너구리등 중,대형 포유류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우리 어린 산하, 오로지 꿩과 토끼만이 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집 아버지는 이런 고기잡이 짐승잡이에 문외한이고

큰집의 5살 많은 현기조카가 이런 것에 장끼가 있어서 가끔 따라가곤 하였다.

그 땐 주로 독약을 뱉어서 잡았는데 주로 짙레나무열매를 이용하였다.

빨간 짙레나무 열매에다 가운데 "싸이나"라는 독극물을 넣어 두고 가면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토끼와 꿩들이 몇 안되는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독극물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모두가 지금 생각하고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단백질이 부족한 가난한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것들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 것도 무시 할 수 없었던 가난한 시절이었다.

### 3-41. 밀떡(메뚜기)잡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들판은 온통 메뚜기 천지이다.

벼메뚜기(밀떡), 방아깨비(황굴레), 여치, 배짱이, 풀무치....

농약이 광범위하게 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벼메뚜기는 우리의 들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고서 약 10년전까지 약 25년간은 벼메뚜기를 구경할 수 없었다.

10여년 전부터 서서히 많아진 메뚜기는 이제는 제법 잡을 수가 있는 시절이 돌아 왔다.

그 시절 주전자 하나를 들고 가서 1시간 정도 잡으면 어느새 한 주전자가 되고 만다.

동솔에 가 메뚜기를 붙고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 솔 속에서 메뚜기의 움직임이 요란하다가 금방 잠잠해진다.

그 때 먹은 메뚜기는 참 고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른이 되어서 먹어 보니 그 맛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 3-42. 징검지(징거미) 잡기

알령 못에는 징검지(민문새우-징거미)가 많았다.

목욕하려고 들어가면 징검지들이 모여서 몸에 달라붙어 짜비곤(꼬집곤) 했다.

반대9족대)를 들고 못가로 한바퀴 끌며 제법 징검지를 잡을 수가 있었다.

진흙이라는 선매가 있었는데 맨날 징검지라고 놀렸다.

민물새우인 징검지를 잡아 익혀 붉게 물든 징검지 요리를 맛보곤 했다.

징검지는 몇마리를 잡아서 붓어 낚시 미끼로도 쓰인 곤 했다.

### 3-43. 트럭 위 수박 훔쳐먹기

안령의 고바이 정지나무의 언덕, 비포장에 짐을 잔뜩 실은 짐차들은 매우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을 파악한 아이들은 느티나무 위에서 놀다가 안령들에서 나온 온갖 식품들이 짐차에 실려서 가고 있을 때 달려가서 하나씩 빼 오곤 하였다.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단연코 수박이다.

차가 오르기를 기다려서 마구 달려서 짐차에 올라 수박하나를 빼내서 하차, 그리고 그걸 여러명이 둘러 앉아서 먹었는데 수박을 빼는 과정에서 터지기도 하고 차에 오르려다 어퍼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운전기사도 분명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마도 한개 정도는 눈을 감아 주었거나 나무(타)동네에서 많은 청년들과 상대하기가 거북해서 그냥 가곤 했을 것이다.

### 4-1. 모싱기(모내기)

모싱기(모심기) 농사의 여러 일들 중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고 마을공동체가 품앗이를 해서 하는 공동 노동이다. 농사를 별로 거들어 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모싱기가 가장 힘든 걸로 생각한다

5월말에서 6월 중순까지 주로 모를 심는데

먼저 모를 찢다. 모자리를 한 눈에 모를 찢는데 여기서부터 조져 알아 모를 찢기 시작하면 허리 하나 펴지 못하고 계속 구부려 일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실제 모내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허리를 못 펴니 힘든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모를 찢고 모를 심는 일은 여자들이 남자 보다 더 잘한다. 인내력이 여자가 세서 그런지...

못줄은 힘없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주로 넘기는데 "어-이"하면서 못줄을 넘기는데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내가 어른들에게 "어-이"하면 반말하는 것이라 쑥스러워 한 기억이 있다.

넓은 눈에 소로 눈을 갈고 써리고 하여 물을 넣어서(대서) 무논을 만든다.

못단을 여기 저기에 던져 놓고 10여명이 논에서 "어-이"라는 구령과 같이 한 논이 푸르게 변해 간다.

하루는 토일이 형님이 모심다 말고 청개구리 한마리를 잡아서 위장에 좋다고 산채로 그냥 속하고 삼킨 기억이 생생하다.

#### 4-2. 타작

콩타작, 밀타작, 보리타작, 나락타작...

보리타작은 까끄래이가 많아서 가장 싫다. 우리가 타작을 할 때는 일제시에 개발된 타작기계를 이용하였는데 발로 밟으면 앞이 V자의 철사들이 박혀 있는 원통이 돌아서 거기에 나락을 대면 낱알이 떨어지는 기계이다.

타작은 추수여서 즐거운 일이다. 그 부산물인 짚으로는 지붕을 이고 소의 여물을 하고, 퇴비하고, 아궁이에 불도 지피고...

타작이 다 된 나락은 풍로(풍구)로 돌려서 낱알을 가린다.

그리고 말리고 그리고 정미소로 가서 진짜 쌀로 변한다.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생긴 밥은 요즘도 남기면 죄가 되는 듯하여 남길 수가 없어 식당에 가면 밥은 다 먹는다.

콩타작을 하고 나면 도리깨로 두들겨서 더 알곡을 만들어 낸다.

타작 때도 아이들의 작은 힘도 필요해서 벼짚을 나르거나 하면서 거들었다.

당시 봄, 가을에는 가정실습이랑게 있어서 3-4일씩 집에서 농사를 거드는 시간이 정식으로 있었다.

#### 4-3. 짚쌓기

타작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은 부산물이 짚이다.

타작을 하면서 한사람은 알곡을 타작기에 가져다 가고 1-2명은 타작하고 한 명은 옆에 짚이 나오면 그걸 묶어서 짚단을 만든다.

그럼 가장 어린 아이들은 그 짚단을 뒤 안이나 집의 구석진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 짚을 쌓아 둔다.

한단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몇단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오미 가민스려 장난도 치고...

그 후 어른이 다시 진짜 짚단을 쌓아서 보관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아이들이 쌓아서 그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그리로 죽 들어가는 놀이도 하기도 하고...

#### 4-4. 새끼꼬기

나락타작이 끝나면 알곡은 사람이 먹고 정미를 하고 남은 등겨는 소들이 영양식으로 먹고 등겨는 땀감으로 쓰고 그리고 또한 남아 있는 게 짚인데 이 또한 쓸 곳이 많다.

우선 여물로 만들어 소를 맥이고, 땀감으로도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새끼로 꼬아서 새끼를 만들고, 각종 망태기등 짚으로 만들수 있는 농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지붕을 이고 가마니를 짠다.

그리고 소외양간에 깔아 추위에서 보호하고 그 소거름으로 비료로도 쓰고...

새끼는 주로 농한기인 겨울철에 꼬는데 그것도 상당한 솜씨가 필요하다.

가끔씩 춤(침)도 발라 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가면서 새끼꼬기를 하는게 농촌의 겨울밤의 풍경이다. 그것도 좀 지나니까 새끼 꼬는 기계가 나왔고 조금 지나니까 인조섬유로 만든 헐한 제품이 나오니 새끼꼬기는 아득한 역사속으로 들어 가버렸다.

#### 4-5. 지붕이기

초가지붕은 1년에 한번 인다.

먼저 짚은 한주먹씩 엮는다. 그리고 묶은 초가는 발라내고 그걸 돌돌 말아서 지붕위로 올리고 지붕을 덮는다.

그 역은 것(이름을 잊어 버림)을 사다리를 통하여 지붕으로 올라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 남자 어른들은 품앗이로 서로 도우면서 지붕을 이었다.

맨 위층에는 옹마루를 하는데 짚의 방향이 양편으로 가도록 하여 이면 초가 이기를 완성한다.

초가가 새로 몸단장하면 회색 빛 지붕이 황금색으로 변하여 보기도 산뜻하고 냄새도 좋다.

#### 4-6. 가마니(가마니) 짜기

새마을 운동이 일어 나기 전에도 가마니를 짤지만 새마을 운동의 한 행동 지침이 가마니 짜기이다.

농한기 농촌의 들일은 할 일이 없다. 요즘처럼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인 돈벌이라 하여 가마니짜기를 정부에서 많이 장려하였다.

가마니는 기본적으로 2명은 되어야 짤 수 있다.

주로 부부가 짜는데 남편이 짚을 걸어주면 아내는 당기고 그럼 짚을 남편이 힘있게 내리 치는 작업이다.

아이가 하나 더 일손이 있어 거들어 주면 능률은 배가 된다.

나는 늦게 본 아들이라 나의 아버지가 지극히 아끼셨다.

이 힘든 농사일을 어떻게 아들에게 대물림을 하느냐 시며 당신은 힘드신대도 불구하고 공부만을 강조 하셨다.

가마니를 짤 때면 아이는 공부하고 어른은 가마니 짜고... 그러던 어느날 공부하다가 낮에 너무 놀아서 존 기억이 나는데 그 때 아버지는 매우 화를 내시며 가마니를 짜라고 하셨고 그 와중에서도 자불다가(졸다가) 아버지한테 디기 꾸지람 들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 4-7. 베짜기

농촌의 일은 끝이 없다. 우리가 살던 소시적만 하더라도 거의가 자급 자족이 되던 그런 생활을 했다.

그중 가장 먼저 없어진 게 베짜기인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 가기 전에 엄마가 상방(염방)에서 베를 짜는 것을 봐 왔다.

주로 삼베단을 짤는데 삼농사를 지어서 그걸 삶아 겁떼기를 벗겨내어서 그 겁떼기를 잘게 나누어서

그 한올 한올을 손으로 이어서 실을 만든다.

그리고 그 실을 가지고 베틀에 경사를 먼저 만들어 쳐 놓고 위사를 북에 넣어서 한번 들어 갔다가 당기고 하는 수작업이 계속된다.

그 촘촘하게 만든 것이 소위 말하는 요즘의 안동포인데 아직까지 진짜로 수작업 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 베짜기가 여자의 거의 본업이 된 것은 힘센 남자는 밭일을 해야 하고 힘이 좀 없어도 되는 베짜기는 여자가 하기에 쉬웠을 것이다.

이게 아마도 처음의 분업이 아닐런지...

#### 4-8. 논갈이

소는 식구와도 같은 존재이다. 집도 언제나 아래채의 중간 사랑방 옆 방앗간 옆에 있고..

소는 들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힘의 몇배를 하기 때문에 옛부터 암소는 여자노비값, 황소는 남자노비값과 대등하게 쳐 주었다 한다.

일철에 소는 여러 일을 하지만 먼저 눈을 간다.

이모작하지 않은 눈은 그대로, 한 눈은 보리 베고 난 뒤, 쟁기를 가지고 소등에다 메고 소를 부린다.

이래! 이래! 가자

어디! 어디! 오른쪽으로

너러! 너러! 왼쪽으로

워! 워! 그만 스톱

소는 주인의 성질을 그대로 성질을 닮는다 한다. 급한 주인을 만나면 소도 급하고 천천히 부리는 주인을 만나면 소도 느리고..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참 급하셔서 우리소도 언제나 성질이 급했다.

소로 눈을 가는 일은 한 두번 해 봤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요령과 소와 호흡을 잘 맞추면 그런대로 할 만한 일! 그보다는 눈을 써리는 일이 더 힘들다.

눈을 갈고 물을 데고 나면 눈을 고르는데 이때도 소의 힘이 필요하다. 이를 써린다고 한다.

그래도 그 때의 소는 힘이 들었지만 요즘의 소보다는 행복했으리라.

힘든 일이 끝나면 자유가 주어져 들의 푸른 풀을 뜯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집에 가면 여물을 끓여 주어 그걸 먹고 자랐으니 요즘처럼 1.5m의 공간에 움직일 수 없이 사육만 당하고 맛있는 사료만 잔뜩 먹는 그야말로 비육우보다는...

4-9. 구름마(달구지)

소들이 다음으로 하는 것이 달구지 끄는 일이다.

소보말로는 구름마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일어의 차(구루마)에서 나온 말이고..

그 때 운반 도구라고는 지게와 구름마 뿐이었는데 지게는 사람 힘으로 구름마는 소 힘으로...

발통(바퀴)은 아주 커서 아마도 상용차의 바퀴를 사용하였었다.

암소도 가끔은 끌기도 하였지만 주로 황소가 많이 끌고 다녔다.

소는 참 힘이 들었을 것이다.

눈 갈어야지 눈 썰어야지, 일을 끝내고는 사람을 태우고 구름마를 끌어야지...

그뒤 니아까, 딸딸이(경운기를 개조한 차), 경운기들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게 된다.

4-10. 니아까(리어커)

니아까가 우리동네서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병연 형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좀 부실해서 세우는 것도 없고.. 약하기도 하고..

아마도 초등학교 3-4학년때부터인가 니아카는 순식간에 집집마다 보급이 되어 버렸다.

초등학교 2학년때 경지가 정리되고 논길이 정비되자 니아까가 나와서 한결 옮기기가 수월하게 되었다.

소가 하던 달구지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지게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지만 적당한 힘이 들어가도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았다.

이후 니아카는 들일 갈 때 항상 가지고 가는 자가용과 같은 것이 되었고 그것이 뒤에는 자정거와 오토바이 그리고 경운기에게 자리를 내어 주기 전까지 한참동안 지게 대신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시골에 안착하였다.

그것도 자가용이라고 안령1000번 등으로 번호도 그려 넣기도 하였다.

그 때 우리는 약 30년 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진다는 생각을 하였을까?

4-11. 자장구(자전거)

니아까의 이기가 들어오고 나서 2-3년이 지나면서 어느 사이엔가 하나 둘 자장구(자전거)를 사기 시작하더니 어느 사이엔가 집안의 필수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니아까는 주로 새것을 샀는데 자장구는 주로 중고를 많이 샀었다.

들에 물을 대로 가거나 간단한 일을 할 때는 역시 니아까보다는 힘이 덜 드는 자장구가 인기가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용들 자전거도 따로 나오지만 자장구 한대도 중고 사던 시절에 아이들은 발이 자라가지 않자 중간으로 타기 시작했고 어느 사이엔가 작은 아이들도 나름대로 거의 탈수가 있게 되었다.

처음 자장구를 배울 때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기도 하였고 한번은 보뜨랑에 처박힌 일도 있었다.

마당에서 나의 여동생들이 모두 타지 못할때 군위는 한바퀴 대구는 3바퀴 서울을 5바퀴 원산은 7바퀴 하면서 태워 주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4-12. 디딜바(디딜방아)

방아간의 디딜방아를 찢어 봤습니까?

옛집은 옷채는 큰방 마루 상방 그리고 부엌이 있고 아랫채는 아랫방 방아간 마구간이 있는게 기본 틀이다. 방아간에는 디딜방아라 하여 집에서 뿔 수 있는 방앗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이용한 것 같다. 그 전집에는 새집이라 하여 아버지가 살림을 차리던 1950년대 초 반에 지어서 방아간이 없었는데 새로이 이사간 집에는 방아간이 있었어 간단히 밀을 뿔 때라든가 엄마는 자주 이용하였다.

최소 2명 기본 3명이 필요하므로 어린이의 힘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기구이다.

엄마는 방아가 올라갈 때 마다 안의 내용물을 섞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임에도 능숙하게 다치지 않으면서 내용물을 고루 뿔게 하였다.

그보다 더 큰 뿔을 거리는 옛날에는 정지나무 옆의 연자 방앗간에서 했고 내가 소시적에는 장터의 방아간을 이용했었다

4-13. 나무하기(지국역, 고지베이, 짝다리, 깔비, 소깍)

겨울에는 나무하기가 낫의 주된 일거리다.

여름에는 여러 농사일이 있었지만 겨울의 낫은 만물이 생장을 멈추므로 일거리가 없을 뿐더러 추위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때 우리의 산하는 나무를 뿔감으로 하였기에 헐벗어 있었다. 그래서 주로 산뿔을 중심으로 나무를 하여 왔다.

고지베이란게 있는데 이것은 나무를 베고 난 뒤의 그루터기이다. 이것이 썩으면 쉽게 발로 차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짝다리란 소나무가 자라면서 아랫 부분의 가지가 말라 죽은 것을 그냥 꺾어 오는 것

그리고 깔비는 소나무의 낙엽인데 올해 떨어진 깔비는 노랗다가 아주 붉은 색으로 변하며 화력이 상당히 좋다. 소깍은 청소나무를 그대로 낫으로 잘라 오는 것인데 법으로 금지 된 것이다. 이를 썰아 두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적당히 말랐을 때의 화력은 굉장히 좋으나 산림녹화를 시행하던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하였다.

나는 도시에 나와 있어서 일에 서툴렀는데 나보다 2살 정도 적은 아이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것 같다. 지게에 나무를 올리는 것도 상당한

요령이고 그걸 지는 것도 또한 요령이다.

우린 나무 해 오면서 항상 지국택의 산소 앞에서 쉬곤 했는데 그 곳을 지국역이라 부르기도 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무를 얼마나 많이 해 오는지 조그만 산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었다.

#### 4-14. 소먹이기(소먹이기)

소는 농촌에 있어서 가족이요 머슴이다.

소먹이기는 여름철의 아이들의 몫이다. 한여름의 농촌은 너무 더워서 농사일이 약간 소강상태이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소를 몰고 동네 주위의 산으로 가는데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우린 주로 고개너머의 한심, 고란(골안), 옷나물골, 송장골, 각골, 말바(말바위)...

그리고 소를 산에 올려 놓고는 물에 가서 노는 것이 하루 일과이다.

가서 고기 잡고 목욕하고 씨름도 하고 그늘 아래서 공개도 하고 끈도 뜨고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자기 소를 몰고 집으로 들어간다.

멀리서 보는 동네는 엄마들이 집에서 불을 때서 저녁준비를 해서 하얀 연기가 자욱히 덮는다.

약간 어둑한 날씨와 맞물려서 정겨운 풍경을 연출했다.

#### 4-15. 소풀하기

소들은 낮에는 나가서 풀을 뜯고 아침, 저녁에는 사람이 해 온 소풀을 맥었다.

겨울에는 주로 짚을 주었지만 여름에는 주로 들에 나는 신선한 소 풀을 주었다.

소먹이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풀하기인데 망태나 대레끼를 들고 가서 소풀을 하곤 했다.

어른들은 지게를 지고서 하고 리어커가 공급되고는 리어커에 하기도 하고

보통은 망태에 하였다.

논둑과 보뚜랑 등에는 바랭이등의 들풀이 많고 산에는 산풀이 있으나 부드럽기야 들풀이 부드러웠다.

씨띠(쇠뜨기)는 설사를 하기에 하지 말고...

#### 4-16. 소죽(작두질, 불때기)

소풀을 해 온 것으로 그냥 주기도 하지만 작두에 썬다. 푸른 풀은 몇 번만 작두질을 하지만 겨울의 짚단은 총총히 작두로 썬다.

주로 숙달된 아버지가 대고 나는 발로서 눌러 자르고...

가끔씩은 작두에 손을 뻐드든가 하는 이야기가 있으리 만큼 생각하면 으스스한 작업이다.

그 뒤 손으로 자르는 낫같은 작두가 나오더니 기계로 하는 작두도 나왔다.

그렇게 작두질한 소풀나 짚을 소를 맥이기 위해서 소죽을 끓인다.

겨울에는 짚을 대부분으로 하고 약간의 건조와 등겨와 쌀겨울...

여름에는 소풀을 약간 데워서 주곤한다. 아마도 여름이 소에게 있어서는 영양식이라.

겨울에 소죽을 끓이면서 그 불로 세수물을 데우고, 그리고 불로는 고구마도 굽고, 달걀밥도하고 국시꼬랑지도 굽고...

#### 4-17. 부역(눈치기, 나무심기)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부역은 그 잔재가 우리시절 때까지 이어져 왔다.

눈이 오면 눈을 치운다. 물론 집 앞은 자기가 치우고 동네별로 신작로의 일정부분의 담당을 나누어서 눈을 치우곤 하였다.

우리마을은 안령고개의 응달진 곳인데 눈이 오면 쉬 어는 곳이다.

눈이 오면 동장이 방송을 한다. 밀대와 빗자루를 적당히 하나씩 가져 가서 눈을 치우곤 하는데 이것도 공동사업이라고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요한 사업은 사방사업이라 하여 산림녹화이다.

박대통령은 산림녹화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려 산에 나무를 심곤 했다.

물론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반 강제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야 국가가 하는 일에 감히 반기를 들 생각도 하지 못하던 때이고 그것이 당연한 국민된 자의 의무로 생각하던 시절이다.

#### 4-21. 개농사

자급자족을 하던 시절, 농사는 논농사가 위주이고 그를 위한 소, 그리고 돼지, 개, 닭 등의 가축을 많이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집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가축을 키웠다.

우리집은 개농사가 그런대로 잘 된 것 같다.

개는 매우 영리해서 한번 키우면 정을 떼기가 무척 어려운 짐승이다.

물론 소도 매우 중요해서 한식구로 받아 들였으나 정이란 측면에서는 개를 따라오진 못한다.

촌의 개는 자유방임이다. 지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노동력이 있어서 일을 시키지도 않고, 밤에 수상한자가 오면 소리로 짖어 주면 자기의임무가 끝나는 매우 편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아이들이 똥을 누면 "도꾸 또꾸" 불려서 맥이고, 그리고 사람이 먹던 밥도 얻어 먹어서 다른 가축에 비해 영양가도 많은 것 같고

우리집에는 한 7-8년 동안 흰 개를 키웠는데 참 오랫동안 키워서 정도 많이 들었다. 쥐도 가끔 잡아주고...

개은 팔때가 가방 가슴 아프다. 개장수가 오면 개는 자기를 잡으로 온 줄 알고 저항하며 짖고 잘 가려 하질 않는다. 어린 동생들이 개를 안 팔려고 아버지한테 때를 썼지만 아버지는 개를 팔았고, 동생은 울고 난리가 났다. 그럼 아버지는 다신 개를 안산다고 하시고...

가끔씩 쥐약을 먹은 쥐를 개가 먹어서 죽기도 하였는데 그광경은 매우 참혹하다.

그래도 요즘 아파트에서 사람을 위한 화장 성대수술을 하면서 크는 개보다는 훨씬 행복했으리라..

#### 4-22. 소농사

소는 옛날에 노비의 몸값과 같을 정도로 농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 하였다.

그만 큼 중요 해서인지 아랫채는 사랑방과 방앗간 소의 마굿간이 있을 정도로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해 주었다.

우리집 소농사는 잘 안 되는 편이었을 것이다.

우리집 소는 암송아지가 비싸면 황송아지를 말고 황송아지가 비싸면 암송아지를 낳곤 했다.

소도 지각기 얼굴 모양이 있어서 모두의 얼굴이 틀린다.

요즘의 도시아이들은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소먹이러 가는 아이들은 정확히 자기 소의 얼굴을 아니...

흑인들도 자주 보면 얼굴의 구별이 가는 이치 일 것이다.

#### 4-23. 수박농사

옛날의 수박농사는 참 보기 힘들었다. 특히 우리 촌에는 논농사가 주이고 밭농사가 거의 없어서 수박농사가 거의 없었다.

나는 아기 때 수박을 무척 좋아 했으나 본데, 귀한 아들이 내가 올면 앞집 아짐은 수박 한디(한개)를 들고 올라와서 울음을 그치게 하곤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큰집에서 아끄령(앞거령)하천부지에 수박 밭을 하였는데 가끔씩 가서 얻어 먹곤 했고 매우 부럽기도 했다.

그때 물이(오이)를 먹어도 그 맛이 꿀과 같은 느낌이었다.

참 귀하던 수박을 밭에 가서 서리를 하기도 하였는데 중학교에 들어 오면서 인심이 사나워 돈을 물리는 등 조치를 취하여 옛날의 추억의 수박서리는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고 대학에 들어서 한 두번 정도의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때만 해도 원두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는 등 그런데로의 낭만을 가진 수박 농사였었다.

#### 4-24. 니비(누에)농사(돌배이, 1장)

니비농사는 부업으로서 매우 중요했다.

봄과 가을 부번 니비를 쳤는데 한 보름동안은 니비 때문에 정신이 없다.

세는 단위는 한돌배이라 하여 분배 받았고 그2-30돌배이가 1장으로 기억하는데 몇장씩하는 집은 잠실의 갓추고 니비 농사를 지었다.

우리집은 한 15돌배이 했나? 큰방에 한방 정도 들어갈 정도로 쳤으니

니비는 알에서 깨어나면 부드러운 닭 깃털로 분류한다. 그리고 뽕을 먹는데 1-2잠을 잘때 까지는 별로 바쁘지 않다 3-4잠을 자면서 급속히 크면서 뽕잎을 쳐 오느라 매우 바쁘다.

그리고 뽕잎을 먹는 소리가 꼭 소나기 오는 소리와 비슷하고..

니비는 잠을 자는데 일정부분 크면 머리를 쳐 오며 움직이지 않다가 탈피한 뒤 잠이 깨면 또 왕창 먹고 그리고 마지막 잠을 자고는 누렇게 변하다가 드디어 고치를 만든다.

그 고치가 오염 되지 않게 하여 정품의 고치를 만들었는데

당시 농사의 부업으로서는 꽤 괜찮았을 것이다.

그 부산물로서는 번데기와 뽕나무의 오디..

#### 5-1. 소팔기

소는 농가의 귀중한 자산이자 식구이다. 논농사 이외에 거의 유일하게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부업이기도 하였다.

오죽하였으면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소팔았다고 우골탑이라 하였을까?

5일장의 한켠에는 반드시 우시장이 있었다.

대개 한집에 한마리의 소를 키우고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팔았으므로 우시장은 상당히 활발하였다.

아버지는 소를 중개를 하기도 하여 중개료를 가끔 벌기도 하였다!

소를 볼 줄 아는 것 소가 싫한지(튼튼한지), 나이는 몇살인지, 임신을 했는지를 아는게 중개인의 자격이다. 우시장 한켠에는 강아지와 닭들도 팔아서 가축시장의 면모를 갖추었고

주변에는 소를 팔고난 뒤 한잔하는 막걸리 집들이 있었다.

#### 5-2. 누룩(밀주)

옛날에는 모든 것을 자급 자족하였다. 술도 예외가 아니여서 모두들 집에서 담궈 먹었다!

부자들은 안동소주 경주법주처럼 소주나 청주를 먹었겠지만 쉽게 먹을 수 있는 농주는 역시 막걸리이다!

일을 하면서 한사발의 말걸리는 거기서 나오는 힘든 농사일의 에너지를 넣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술은 정부에서 각도에 1개사씩 소주회사를 남겨 두고 각면에 1개씩의 막걸리 도가를 두는 정책을 펴고 일반 가정에서는 못 만들어 먹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였다!

그래서 그것은 전통주의 맥을 끊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전통주가 거의 사라지게 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밀주는 있어서 단속의 손길을 피해서 누룩을 만들어 몰래 담궈 먹곤 하였다.

우리집도 누룩을 만들어 단속반이 오면 피하고 하던 것들이 기억에 생생하다!

하도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누룩은 보리로 싹을 나게 하여 발효를 시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잔치에 농사일에 한사발의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누룩을 만들었는데 왜 그리 단속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한참 일을 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노동을 술에 투자 해서 일까? 아니면 없는 쌀을 소비 해서 일까?

그때의 도가의 막걸리는 모두 밀로서 만들었다!

#### 5-3. 나무한 것 적발

단속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생나무를 자르는 것이었다!

어릴때 쯤의 시골의 연료는 모두 땔나무는 모두 산에서 해결했다!

가장 화력이 강한 것이 나무, 짝다리, 등거리, 갈비, 산풀, 등겨, 짚 순이었는데 당시 산이 험해서 산에 생나무를 하는 것을 강도 높게 단속 하였다!

그래서 나무를 할 때는 산에 가서 산풀을 주로 해오는데 화력이 강한 생나무의 매력을 아마도 모두들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씩 나무를 몰래 하여서 쌓아 두곤 하였다.

4학년 때인가 나무도 잘 못하는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오래목(오리나무)이랑 해서 생나무를 한단하여 쌓아 겨울 나기를 준비 했는데 그게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지서에 가서 조사 받고.. 어려서 순경복만 봐도 무서운 시절 괜히 아버지 돕는다고 따라가서 단속되었다 생각하니 항상 가슴에 남아 있던 하였다.

#### 5-4. 샘(목말, 물푸기)

우리동내에는 샘이 4개가 있었다.

안마(안마실)에 1개 못 바로 아래 1개 우리 집 앞에 1개, 감제 1개..

그 중에 우리 집앞의 샘이 가장 깊었고 또한 차기도 하였다.

두레박을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정도에 한두레박을 푸고 그리고 다시 내려서 물지게에 한지게가 되면 집의 물독에 붓고 이걸 3-4번 정도 하면 물독이 한 가득 찬대

여름에는 샘옆에서 남자들은 옷통 벗고 목말도 하는데 그 차기가 한여름의 더위를 다 쫓을 듯하였다.

또, 그 차거운 물로 수박 화채를 하여 먹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수가 나오는 지금 시골의 물은 분명 지하에서 당겨 씬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함을 보면 우리가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 5-5. 농약치는 모습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농약은 가루약과 물약이 있었는데 가루약은 대나무 끝에다 천을 둘러 그안에 흰가루약을 넣고 마스크를 하고 다른 나무로 툭툭 터는 농약이고

물약을 분무기로 농약과 물을 적당 비율로 섞어서 지게처럼 메고 이리 저리 다니면서 약을 치는 것이다. 그런데 아마 초등하고 고학년쯤이 되어서 신기계가 들어 왔는데, 커다란 다라이에 물을 몇 바케츠 넣고 농약을 적당히 비율로 섞고 발동기의 동력으로 긴 호수로 농약을 치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다.

줄을 한 10여명이 들고서 눈을 한단지 치는데 순식간이어서 그야말로 그 효율이 몇10배는 되는 것이었다.

모두들 신기계에 대한 능력에 놀랐다.

농약을 치면 작은 벌레들이 튀어 오르고 그걸 잡아 먹으려는 제비들이 몰려들고...

이러한 농약치기도 점차로 사람이 적어지니 노부부 달랑 둘이서 치는 현실이 지금의 농촌의 모습이다.

#### 5-6. 머리깎기

장터에 가면 이발소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우리 어린시절의 이발사는 언제나 나의 아버지다.

바리깡과 빗, 그리고 가위하나를 준비하시고 아들인 나는 언제나 뽀뽀머리, 딸들에게는 단발머리로 잘라 주신곤 했다.

겨울엔 양지바른 곳에서, 여름은 나무그늘 아래서, 보자기 하나를 두르고..

차츰 커가니 앞에는 기르고 뒤에는 바리깡을 대는 하이칼레(하이컬러?)를 하나 둘 하기 시작 했는데 몇차례 즐라서 그 뒤로는 나도 아버지지가 해주시는 하이칼레머리로 다닐수 있었다.

잘려진 머리카락이 찌르는 따가움과 조금은 서투른 이발사의 바리깡 숨씨에 가끔씩 찡그리는 머리 깎는 모습.

#### 5-11. 저녁풍경

소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우리는 늘 오후가 되면 소뭍이러 갔다.

소뭍이러 가는 건 핑계고 사실은 놀러 가제..

소는 산에 가서 지대로 풀을 뜯어 먹고 아들은 모이가치고 저들끼리 놀고..

강에서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고..

꽂개(공기놀이)도 하고, 끈(장기 비슷한것)도 뜨고..

씨름도 하고..

그카다가 날이 어둡으면 모두들 지소 지가 몰고 지집으로 향한다...

마을을 향할때면 동네는 연기가 자욱하지..

집집마다 저녁밥 한다고...

참 아름다운 풍경이제..

오늘 울집에는 뭘 먹을까 국인가 밥인가?

#### 5-12. 모기불

요새야 모기가 오면 모기향을 피우면 되는 세상이다. 그것도 향모양에서 전자모기향에서 한단계 발전하여 약도 한번 넣으면 2-3개월 쓰는게 나왔으니 엄청 편리도 하다.

여름밤에는 모기가 엄청 많다. 마당 한가운데서 마루를 펴거나 아니면 짚으로 엮은 깔판(명석)을 깔고 거기서 저녁을 먹곤 하였는데 먹을 때는 초저녁이라 먹을수 있는데 조금 어두어지면 모기 때문에 모기불을 피운다.

연기를 자욱히 하면 모기들이 아마도 달아 나는 모양이다. 메그러워 하면서도 그 옆에 있으면 모기가 적어서 좋다!

자려면 방안에 먼저 짚의 모기불로 한번 모기를 훑고 그리고 방문을 닫아 두었다가 마실 간뒤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도 하고 마당에이나 마루에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자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니 모기 때문에 엄청 시달린 것 같다! 소마구에도 소들이 좀 덜물리게 모기불로 모기를 후치는 것도 잊지 않고

#### 5-13. 여름밤풍경

여름 밤의 풍경은 삼삼오오 집밖으러 나와서 거리에 나와 더위와 모기를 피했다.

바람이 통하면 모기도 적고 또한 시원해서 좋다!

거기서 모기불을 놓기도 하였고..

밤이 여름은 동네 구석 구석에 이야기 꽃이 피어난다!

암마 한곳 감재 한곳, 어른 한곳 아이 한곳...

#### 5-14. 마실가기

마실가는 겨울의 풍경이다.

겨울은 농한철이라 시간이 그중에 가장 많았다! 가끔은 가마니도 치고 새끼도 꼬고 하였지만 놀러 가서 이야기 하거나 내기 하는 것이 태반이다.

어른 들은 놀러 가서 새끼를 꼬기도 하고..

놀면서도 이야기 하는 것이 주이니 참으로 건전한 놀이 인것니다.

화투를 해서 무시를 캐서 깍아 먹거나 고구마를 깍아 먹이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사랑채에는 단호어린이 주로 놀러 오셨는데 그저 이야기 하면서 담배를 나눠 피우는 것이 기적이니 요즘에 만나면 술먹고 노래방가는 것에 비하면 많이도 변화였다.

#### 5-15. 장날풍경,

예로부터의 장은 5일장이다. 소보장은 2,7일 군위장은 3,8일 우리 소보면의 원래 소재지는 화실이고 그 뒤 화창으로 옮겼는데 그뒤 1958년에 소보에서는 가장 너른 들의 입구 송원동의 중심 대송, 안령(질매지), 석정(돌정지)의 중간 벌에 장이 서게 되었고 나중에는 면소재지가 되었다.

당시 장날의 풍경은 어린 눈에는 그야말로 휘황찬란 한 것이다. 옷가게, 생선가게, 공산품, 그리고 튀밥, 우시장, 대장간...

엄마 뒤를 졸졸 따라 다니다가 엄마가 주어 주는 멸치 한마리가 그렇게 맛있던 시절이다.

장이 끝날 때 어둑함이 드리려 할 때

묵둑의 오르막의 풍경은 언제나 같았다.

묵둑의 오르막은 당시로서는 꽤나 오르막이어서 주로 말로 이동하던 당시의 장사꾼들은 몇십발치 뒤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하여 겨우 올라가곤 하였다.

아주 가끔은 실패하기도 하였고...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이래!....

#### 5-16. 가설극장

극장이 없었던 시절, 당시 대구만 해도 일류극장을 제외하고 2류인 동아, 신도 그리고 동네 극장인

부민, 시민, 서부, 사보이, 오스카, 달성, 수성, 신성극장이 있던 시절..

촌에야 당연히 극장은 없었다.

여름철 동네 청년들에 돈을 들여서 영화사를 부르고 해서 가설극장을 여는데..

그야말로 면민의 축제이다.

장터의 한귀퉁이 모래가 많은 곳의 장소를 택하여 가설하니 가설극장이다.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포스터도 붙이고 그리고 짐차(트럭)로 마이크도 홍보도 하고

볼게 귀하던 시절, 면내의 청소년들의 반경도는 아마 다 모였으리라!

볼려고도 오고, 남 만나려고도 오고 친구만나려고도 오고..

5살 많은 큰집 조카 덕분에 한번은 공짜로 구경 하기도 했다.

가설극장의 추억은 궁디로 먼저 들어가면 경비가 와 나가면서 도로 집어 넣는다면서 학창시절 년센스로 회자되기도 했다.

#### 5-17. 씨름대회

시장에 언젠가 한번 단오날에 씨름대회가 열렸다.

온 면내의 청년 아이 할 것 없이 가서 한판 볼곤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2판 연거퍼 이기면 공책이 걸려 있어서 나도 참가 했는데 공책을 탔는지 기억이 없다.

장년부의 씨름판에 그야말로 떡대가 대단한 전문 씨름꾼 2명이 나왔는데

한명은 키가 엄청났고 한명은 보통키인데 덩치가 엄청 났다.

그들은 동네 면민의 아마추어들을 당연히 차려로 물리치고 우승한 것은 당연한 일..

그때의 그덩치들 요즘의 천하장사들과는 분명 비교가 되질 안겠지만 그때의 기억으로는 거의 거인에 가까웠다. 아마도 김성일은 안되어도 그 아래의 부류들이 전국의 씨름판을 휩쓸고 다녔을 것이다.

#### 5-18. 서커스

언젠가 한번 시장에 서커스가 들어 왔다. 가끔 약장수가 들어 오기는 하였지만 서커스는 그게 참이었고 다음에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매우 희귀한 일에 틀림이 없다.

그 때 2학년인가 이었는데 작은 누나와 같이 구경 갔었다.

하늘을 나르는 서커스

그 높은 하늘 위를 원형 테에 의지하여 그네를 타고 그리고 이쪽 저쪽을 날아 다니는 아가씨의 모습

요즘 TV에는 수시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어린 기억이 한참이나 많이 남아 있었던 구경거리이었다.

당시 대구에서도 빈 공터에 거의상시로 서커스가 많았었는데...

처녀 몸에 뱀의 머리... 조잡하였지만 신기한 서커스의 한 종목..

#### 5-19. 경지정리

우리 동네의 들을 한들이라 한다.

야고령(앞거령:곡정천)이 흐르는 강변을 통해 꽤 넓게 들이 자리 잡았는데 면내에서는 가장 넓은 들이었다. 나중에 대구나, 경산 등의 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크기가 참 작음을 알았지만...

그 들을 초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에 경지정리를 하였다.

들에는 처음 보는 불도저라게 이리 저리 밀고

꼬불했던 농로와 논은 직선으로 바뀌어 우리 들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때 불도저의 조수로 일하던 뒷집 천식이 아제는 그 뒤 그 기술로 직업이 되어서 한평생 먹고 살았다.

경지정리가 끝나자 강변의 하천부지는 대폭 줄어 들어서 큰집의 하천 논이 약 1/3로 줄어 들었던 것 같다.

물론 그 뒤로는 홍수관리와 수리가 안정되어서 농사 짓기에는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

그러나 그 꼬불한 토지의 평사리 같은 고향과 들 입구의 소나무는 경지정리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

#### 5-20. 군대 보내기

6.25가 끝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인지 당시에 군대 보내는 것은 거의 전쟁터에 보내는 것과 같은 장면이다.

영장이 나오면 동네 청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트럭에 태우고 군대로 끌고 갔는데 엄마들은 절규하고 난리였다.

아마도 조선시대 변방으로 식구를 보내는 심정이 죽 내려 왔을 터..

얼마전 대한민국을 영화봉으로 만들던 "태극기 휘날리며"에 젊은이 들이 부모들과 생이별하는 모습이 그 정도는 떨어질지라도 심정은 이어져 온 듯하다.

종형수가 아들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치면 우리보다 5년 선배도 그리 힘들게 갔었는데...

요즘의 군대는 힘들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 마음은 아마도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아닐런지..

요즘, 그리 쉽다던 군대생활도 힘들다면서 죽어 나오는 사람이 허다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이고 우리 그 위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 5-21. 잔치준비

동네에 명절을 제외한 최대의 잔치는 결혼식이다. 또한, 그 때만 해도 대부분이 구식결혼식을 했다.

아마도 1975년 정도에 거의 마지막 구식결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술렁인다. 동네가 중급규모인데다가 거의 모두가 친척이고.. 그리고 잔치하는 사람의 촌수에 따라서 거드는 정도가 조금은 틀리겠지만 여자들은 짜짐 부치고 음식 장만하고

남자들은 돼지 잡고 하는데 같이 일을 했다 그 틈에 아이들은 엄마 따라서 몇개의 짜짐을 얻어 먹기도 하고..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돼지 잡는 것이다. 가난한 결혼을 할 때엔 돼지를 잡지 않고 한 20근 사서 잔치를 하기도 중급은 60근, 좀 할 때 약 100근정도의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를 묶고 거꾸로 저울에 매달고 근수를 달 때부터 돼지의 요란한 울음소리... 그리고 근수를 달면 항상 피 값으로 2-3근은 제하고 셈을 하였다.

그의 부산물로 아이들은 아주 모처럼 돼지 봉알이란 오줌보 인지 위인지를 가지고 축구놀이를 했다.

#### 5-22. 잔치

잔치는 보통 농한기인 겨울에 치러진다.

먼저 신부의 집에서 "꼬꼬재배"란 빠드깨미(소꿉장난)의 주된 소재인 진짜 결혼식을 올린다. 그때 신랑측에서 참가하는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인 훈주와 신랑 달랑 2명이다.

신랑은 낮에는 동네 어른들에게 양반인지의 지식을 물어 보는 시험이 치러 졌는데

주로 자기의가족을 어려운 하자말로 해서 알아 듣는 거의 시험이다(자네 완장이 몇인공? 자네 백씨는 무 하는공?..).

저녁에는 소위 발을 묶어 때리는 신랑 골리기가 일어 났는데 어떤 이는 이를 못 참고 싸우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었는데 이때 신랑의 용기와 담력, 술실력, 노래실력을 검증받았다.

그리고 밥에 고추가루 태우기, 첫날밤 방의 구멍 뚫기 등의 무수한 장난이 더불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신랑 신부는 신랑네 집으로 가서 소위 폐백을 하고 시집동네의 여러사람으로 부터 소개를 받는데 이때 신부는 아랫목에 앉아서 꼬마가 들어와도 앉았다가 일어나야 했고 더운 방에서 꼼짝 못하는 고를 감래 해야 했다.

그리고 첫 친정 나들이로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시 신랑집으로 오면 결혼식이 완성된다. 하룻만에 폐백까지 마치고 그들만의 신혼여행을 가는 요즘과는 달리 결혼은 그동네 그문중의 잔치였다.

#### 5-23. 담배 피는 풍경,

담배의 해악이야 요즘은 모두들 알고 끊기도하고 또 끊으려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

담배는 엄격한 예의의 기준대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아버지 앞에선 담배를 피지 못하는 게 예의이다.

촌의 사랑방 어른들이 모여 있으면 으레 음식이 나오고 그러다가 담배도 피고 하는데 대체로 70대이면 그 방에서 그냥 피고 60대면 방구석에서 감춰 피고 50대는 방에서 나와 텃마루에서 피고 그리고 40대는 마당이나 밖으로 나와 피고 하는 게 전통예법이다.

형이면 10살 이상이면 원래 맞담배는 안 되는데 대체로 친형제일경우 6-7세 이면 맞담배를 하지 않았다. 길가를 가다가도 동네 어른이 오면 담배불을 숨기고, 감히 청년들이야 길에서 담배를 생각치도 않았다. 일을 할 때도 쉴 때 잠시 떨어져 나락 옆이나 도랑 옆에서 피곤 하였다.

요즘처럼 지애비 앞에서야 조심하지 할배와 20대나 같이 피는 그런 모습은 최소한 없었다. 모르는 사람도 연배에 맞추어 담배예절을 확실한 그 때였다.

희한하게도 여자, 즉 할머니 어머니 앞에서는 같이 담배를 피웠다.

차별이면 차별이지만, 그만큼 남자들은 노인이 되면 젊은이와 어울릴 때 젊은이가 방에서 담배 피울 기회를 주기 위해 피해 줘야 하기에 오히려 자유를 더 옹호 매는 역할도 하였다.

#### 5-31. 지신밟기

아마도 정월에 하는 것으로 기억된다.

동네의 모든 청장년들이 농약대를 구성하여서 색동옷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해의 안녕을 기원 해 주었다.

마당에 가서 지신을 밟아 주고 뒤안, 정지로 돌아서 밟아 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수고비로 쌀을 반바가지 정도 받아서 동리를 한바퀴 돈다.

그리고 그 모은 쌀로 떡을 하고 왕대포도 한사발씩 돌리고..

지신지신 밟으세! 어허나 지신아~~

#### 5-32. 단오그네

놀거리라고는 별로 없는 그냥 자연에 파 묻히어 사는 정겨운 우리 어릴 때의 놀이들

그래도 단오가 되면 좀 특별한 놀이기구가 만들어진다.

동네의 청년들이 온 동네 돌아 다니면서 짚을 몇단씩 얻어서 그걸로 묶은 새끼를 꼬고 그것으로 그네를 만든다.

그네는 못 위에 양지가 드는 곳에 큰 소나무 몇그루가 있던 못양지의 소나무에 달았는데 앞에는 못이 있고 따뜻도 한 곳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네를 타고 놀았는데 한개의 그네 밖에 없어서 여간 치열 한 것이 아니다.

그 중의 백미는 쌍그네이다. 둘이서 멀리 타는 모습을 보면 즐겁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

짜릿짜릿한 그 기분이 드는 놀이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의 유일한 놀이기구..

그러나 그네는 그리 오래 가질 못한다. 새끼는 4-5일이 지나면 짚은 자연스레 떨어지고 그해의 단오그네는 끝나고 만다.

#### 5-33. 봉개타기

음력으로 10월 보름이 되면 묘사를 지낸다.

15일은 문중묘사(7-8대), 16일은 바람재(풍령 6대조), 낫거리(5대조), 암대(5대조모)의 묘사, 그리고 17일에는 사사묘사(고조부 이하)가 있다. 당시 8대조의 묘사에는 수많은 후손들이 참여 하였는데 묘사때에는 반드시 봉개라는 것을 쓴다.

우선, 동네의 어른 되는 분 10여명은 따로 싸고

나머지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똑같이 쓴다. 업힌 아이도 하나이기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아이들은 봉개를 타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곤 하였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니 말바(馬岩)는 오전에 해서 못 타먹고 오후에 대송(大松)에 가서 타 먹곤 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옛 풍습 속의 묘사는 언제 없어 질지... 젊은 세대가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끼곤 한다.  
일요일 하루에 뭉쳐서 하는 묘사임에도 모두들 객지생활을 하는 우리 들에게는 준비부터 참여까지..  
거기다 옆 대소간의 눈치도 봐야 하고..

#### 5-34. 설 제사지내기

설이나 추석이 되면 우리는 8군데의 집을 돌면서 제사(차례)를 지냈다.  
암마(안마실) 큰집, 그리고 백갓집(밭갈 집), 흥산댁, 큰집, 작은 큰집, 소의할배네, 여산아제네, 의동아제네, 모두 나오는 10촌내의 집안 함께 지냈다.  
얼어 붙은 알령 못을 미끄럼 타서 가서, 그때 독구리를 하나 얻어 입으면 은근히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죽 내려 오면서 떡국 조금 씹 먹고 지내다 보면 점심때가 지나서 끝난다.  
그래서 아침 점심은 7끼의 작은 끼니로 대처한다.  
그 때 제주와 어른들은 좁은 방에서, 그 다음은 마루에서 드리고 아이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절을 했다.  
산업화가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하나 둘 대구로 제사집이 떠나 더니 이제는 모두들 각각 제사를 모시는 시대로 자연히 접어들었다.

볼과 6-7년전에도 대구서 6촌 내의 일가가 3집을 돌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종형, 재종형님께 세배를 겸하였으나 이전 별초와 묘사, 잔치 때가 주로 만나는 날이 되어 버렸다.

#### 5-41. 입학전 공부

요즘이야 학교교육 과정 아래 유치원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우리들의 시절은 첫 교육이 초등학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고 하였다.

형, 언니,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은 깨치고 가기도 하고..

아버지의 동네친구 중에 단호어른(흥이 아버지)이 계셨는데 항상 오면 문제를 내곤 하였는데 내가 몇 문제를 맞추자 항상 감탄하며 칭기 있다고 칭찬 해주셨다.

어린 맘에도 그게 즐거워서 그 어른만 오길 기다리며 그 어른이 오면 문제를 내달라고 졸르곤 하였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올빼미 공책이 있었는데 2원인가 3원 했다.

커다란 올빼미가 그려져 있는 공책

거기다가 한글도 쓰고 하였는데 그게 동네 소문이 나서 "가(그 아이)는 3학년 책도 다 읽는다 카더라"

한글 깨치면 3학년 책 읽는 것 별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책이 귀하던 시절 3학년 교과서 읽는 것도 큰 자랑거리였다.

#### 5-42. 입학하기

초등학교 입학식이 되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라는 곳에 갔다. 앞에는 흰 손수건을 달고...

우리 담임은 황정순 선생님이었는데 시골 학교라야 한 학년에 2반..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하였는데 조기가 꿀밤 맞은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그 때 숫기가 있었던 훈기는 교실로 들어가서 "야 임마 비키!" 라는 한마디로 아이들은 모두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 주었다.

덕분에 앞의 자리에 앉았고 죽 훈기 덕분으로 가들 보다 우위에 서게 된 것 같다.

그 때 2살 많은 외다리의 아이도 있었고..

1학년 위의 3살 많은 7촌 조카의 도움으로 많이 외호를 받아서 좋은 출발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백이 제일이지...

#### 5-43. 가방

대구에 가 있던 누나가 외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 간다고 이쁜 가방 하나 사 줬다.

빨강색의 가방에 등이 닿는 쪽에는 스펀지가 있던 가방..

당시에는 모두가 보자기(책보)다. 남자는 어깨에 걸쳐 메고 여자는 허리에 걸쳐 매고 학교에 다녔다.

그러던 시절에 가방이란 참 튀는 물건임에 틀림이 없었다.

암마 호이(병호)가 샘이 났던지 가방 메고 가는 나의 가방을 덮쳤는데 어깨가 아니고 가방에 덮쳐 힘이 없던 가방은 쉽게 찢어지고 말았다.

그 귀한 가방이 한칼에 못쓰게 되서 한참 운 것 같다.

그리고 그 뒤는 촌에서는 다시 가방 살 일이 없었다.

#### 5-44. 태극기 노래를 부른다.

항상 숫기가 부족한 나는 메산아집(메산댁 아주머니)은 나를 "암산아"라 하였다.

조회시간에 가끔씩 노래를 부르곤 하였는데 나를 보고 니 도 좀 나가 봐라 하였다.

공부는 입학 전부터 닦아 온 실력이여서 부급장이 되어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항상 숫기 부족으로 앞에 나서질 못한 나를 놀리기 반 격려 반으로 충동하였는데

나는 어느 조회시간에 앞에 교단에 나아가 "1학년 1반 민병재입니다 태극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세계 태극기 노래를 불렀다.

그 때 교장선생님도 웃고 모두들 웃었는데 그 뒤로 나는 "태극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가 되어 버렸다.

2학년 때에도 중학교에 다니는 선배 한 사람이 언제나 나를 보면 "태극기--"라며 놀려 대곤 하였다.

#### 5-45. 소풍가기

저학년의 소풍은 위천변의 강가, 그리고 산 고향년이 되면 신라고찰 범주의 범주사에 주로 갔다.

10원인가 엄마한테 받아서 이름없는 사이다 한병 사 먹는 재미..

소풍가면서 긴 김밥도 먹고..

암마(안마을) 사는 용이가 소풍을 갔는데 삶은 고구마를 싸왔다.

가서 농가르는데(나누는데) 이걸 선생님께 이걸 우리께 하더니 선생님께를 내보고 가져 주란다.

그래서 갔다 드렸는데 칭찬 받은 기억이 나는 것 같다. 아마도 선생님은 두고 두고 그게 내것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고

가져온 용이는 잊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두고 두고 뇌리에 남아 있었다.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 한 것인데, 남의 공을 빼앗은

듯한 미안한 마음이...

참 순진한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의 모습이다.

5-46. 까만 고무신

학교에 들어 가면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 놓고 교실에 들어 갔다. 교실 내에서는 맨발이었던가?

신발장의 신발은 95%가 까만 고무신이다. 아주 가끔 흰 고무신이 있었고, 푸르고 검은 운동화가 아주 가끔 있었다.

그 까만 고무신은 달지도 않아서 오래 신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하도 질리게 만들어서 그 고무신 공장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2학년 때 아버지가 새 신을 사 주셨는데 그대로 신발장에 넣고 맨 나중에 교실에서 나오니까 내 신발은 없고 짝이 틀리는 고무신 한 짝이 있을 뿐이다.

하도 닳아서 언놈 게 언놈 것인지 알기가 아마도 본인도 무척 힘들 것이다.

그 날 울면서 집에 온 것 같은데.. 다음날 아마도 도식이 한테서 찾은 것으로 기억 된다.

우리 어린 까만 고무신..

5-47. 다리

우리 마실에서 하교에 가는 데는 아끄령(앞거령, 곡정천)을 건너든지 달천(위천)강을 두번 건너든지 해야 한다.

그 강에는 다리가 놓여 있는데 강바닥에 나무 기둥을 박고 그 위에 다 구멍 뚫린 얇은 철판을 길게 대어서 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끄령의 다리는 그 위에다 흙을 얹어 다져서 흙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홍수가 나면 그 다리는 휩쓸려 가 버린다.

큰물이 오면 가끔 학교에 가질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68년 당시 김봉환 국회의원이 참가한 자리에서 봉황다리를 놓으면서 근대식 콘크리트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버스는 군위 읍내 갈 때까지 산을 넘고 개천의 얇은 곳을 골라서 건너서 갔다.

그 옛날 다리는 중학교 때의 황순원의 소나기의 다리처럼 그 당시의 낭만의 다리일 것이다.

6-1. 傳說-집지키미(기리기)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이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고 미래에 대한 미확실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금기를 낳고 종교를 낳았다.

집에는 집을 지키는 집지키미(守護神)가 있다. 이른바 집의 신(神)이다.

그 집지키미의 대표가 뱀이다.

뱀은 징그러서워 보면 죽이고 들 하였으나 집지키미는 경외의 대상이다.

집지키미란 큰 뱀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이 집을 망조 들게 한다는 이야기고 이 집지키미를 죽이면 더 큰 화를 당 하는 무시무시한 흉물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다. .

그 많은 재물이 집지키미가 나와서 떼뎠다 가면서 망쪼가 들어서 망했다는니 하면서

그러나 한번도 윽게 집지키미란 큰 구렁이를 보질 못했다.

은근히 그 집지키미가 우리 집에서는 안 발견 되었으면 기원 하기도 하였다.

왜냐고? 나타나는 그 자체가 불행을 주니까...

엄마가 살던 외가의 샘에는 큰 기리기(지리기)가 살았다 한다.

나는 처음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리기가 날라서 샘에 동지를 들었나 생각했는데 큰 구렁이가 샘을 근거로 살아 갔던 것이다.

이 구리(구렁이)도 자기가 집지키미로 사람들이 잡질 않으니 늘상 왔다 갔다 하였을 것이다.

어려하듯 큰 구렁이는 인간과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

6-2. 傳說-시발늑대

늑대란 아이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야기만 들어도 으시시하다.

우리 어린 시대에도 이미 거의 멸종하였음에도 그 늑대의 무서움은 전하여 전하여 무서움으로 남아 있었다.

홍이는 마을의 끝자락에 집이 있었는데 밤에 그까지 가기에는 바로 옆의 산이 있어서 더욱 무서웠다.

봉창 뒤로 와서 항상 "엄마! 와! 엄마! 와!"하면서 운다던 그 늑대...

그 늑대보다 한 단계 더 공포스런 늑대가 시발(세발)늑대이다.

분명 사냥군에 의해 불구가 된 늑대임에도 사람은 그 늑대가 발이 세개임에도 굳센 생명력을 보고 더 무서워 했을 른 지도 모른다.

시발늑대는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래서 아들은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했다.

6-3. 傳說-개오지

개오지란 무서운 동물이 있었다.

그놈은 사람이 따라가면 흙을 뒤로 퍼부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개오지는 사람을 만나면 우선 뒷발로 사람에게 흙을 뿌려서 눈을 못 뜨게 만들고 그리고 공격해 온다던 무시무시한 동물이다.

그런 개오지를 클 때까지 한번 보질 못했다.

그 개오지란 놈이 어떤 놈일까? 여우는 아니고...

한참 뒤에 청년이 되고도 한참 뒤에 아버지한테 물으니

그놈은 너구리란다.

별 것도 아닌 동물이 그리도 무서운 동물로 변하는 것은 정보가 단절된 옛날에는 더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서 좋다.

너구리가 그리 무서우면 늑대는 더욱 험악한 놈이었을 것이고..

호랑이는 그야말로 산신과 맞먹는 힘을 가진 동물이었을 것이다.

6-4. 傳說-허깨비와 도깨비,

무서운 놈들 중에는 도깨비와 허깨비가 있다.

도깨비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보통의 빨달린 도깨비와 비슷한 느낌이고 이와는 종류가 좀 틀린 허깨비가 많이 등장 하였다.

허깨비는 헛것이 보이는 것이다. 실은 없는데 흘기면(취하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허깨비는 여우처럼 사람을 흘리기도 하고 허깨비에 흘리면 그곳을 빠져 나오질 못한다.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헤어 나오려 해서 가도 가도 도로 그 자리에 돌아오는 미로 속이다.  
 흘린 곳에서 한참동안 허깨비와 싸우기도 한다.  
 그리고 이겨서 허깨비를 잡아서 나무에 묶어 두었는데 깨어나니 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무에는 허깨비가 썩은 비자루로 변해 묶여 두고 자기 몸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무서운 놈이다. .  
 그러나 허깨비에 흘려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 항상 허깨비에게 이기는데 끝에는 헛것이라는 것이다.  
 뒤에 와서 우리 도깨비를 연구 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게 한국의 도깨비고 그리고 항상 힘없는 서민에게 저 주어서 피박 받는 평민에게 내가 도깨비에게 이겼다는 희망을 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허깨비는 무서운 존재이고 밤의 어둠은 더욱더 허깨비를 무서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6-5. 傳說-강철이

강철이는 여름철 가을 때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존재이다.  
 그는 사람 같은 작은 존재에는 별 관심이 없는 아주 큰 놈이다.  
 저녁, 강철이는 큰 불빛을 내면서 먼 산을 돌아 다닌다.  
 그 강철이가 나타나면 가뭄이 든다 하여 무서움의 대상이다.  
 강철이는 이름조차도 강한 쇠처럼 강하다.  
 뒤에 안 이야기지만 강철이는 이무기의 사투리중의 하나라 한다.  
 아마도 그래서 가뭄의 여름에 자주 등장 하였을 것이다. 하늘을 오르기도 하였을 것이고..  
 그런데 아직도 강철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이야기에는 햇불처럼 생긴게 먼산을 휘젓고 혜성처럼 다닌다던데 아직 보질 못했다.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다.

6-6. 傳說-행상집

마을마다 행상집이런게 있었다.  
 동네에는 사람이 살고 사람은 죽게 마련이니 행상은 항상 나가게 되었는데 마을에서는 반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초상이 나면 서로 짐꾼으로 품앗이를 하였다.  
 행상을 차리고 나가고 그리고 그 행상은 다음 초상을 위해 보관하는데  
 그게 행상집이다.  
 그 행상집은 동네와는 약 200m정도 떨어진 산 아래 있었는데  
 죽음이란 어릴 때부터 막연한 두려움이다.  
 상여(행상)에 뭔가 죽음의 어두움이 묻어 있는 듯 우린 그 행상집 앞을 갈 때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땀박질 하곤 했다.  
 귀신이 쫓아와서 잡아 갈까 봐...

6-7. 傳說-솔티할매

군위읍에서 소보로 오는 길은 세계의 고개가 있다. 그 첫째가 솔티고개이다. 그 고개가 끝나는 지점에 솔티라는 마을이 있다.  
 솔티할매는 솔티에 사는 할매일 수도 있으나 아마도 친정이 솔티인 솔티띠(솔티덕)일 것이다.  
 솔티할매는 끊임 없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남들을 웃겨 준다. 그래서 그런 부위의 여자를 보고 솔티할매의 계보를 잇는다고들 한다.  
 중형인 포이(병표)형님은 박씨리누나(중누님-서방이 박씨인 출가외인)와 옥이(매)가 솔티할매과(科) 란다.  
 이야기 잘하고 잘 웃겨주는 솔티 할매...

6-8. 傳說-갑니

갑니는 아버지가 잘 쓰는 말이다.  
 갑니같이 해가지고.. 하면서 머리를 깎을 때 꼬시는 소리이다.  
 갑니라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머리를 깎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머리 손질을 거의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와 동시대이거나 아마도 그 앞의 세대의 사람일 것이다.  
 우리 할배도 머리를 깎았으니 우리 할배(1881년생) 세대일수도 있다.  
 아마도 상투가 없어지고 할때 어느 줌 게으르거나 줌 떨어지는 사람이 머리 손질을 잘 하질 않아서 항상 터부룩하게 머리를 하고 소보 땅을 다녔을 사람일 것이다.

6-9 傳說-소대시

소대시는 게으르고 잠만 잘자고 미련한 그런 사람이다.  
 아마도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사람과 유사한 사람일 것이다.  
 게으르거나 잠을 많이 잘 때에는 항상 아버지는 "소대시 그치 해가"라는 비교를 하셔서 좀더 재바르고 좀더 부지런히 세상을 살라는 뜻으로 이 사람을 인용하였다.  
 무릇 부지런해야 살수 있던 시절  
 잠만 자면 누가 물을 대고 농사를 짓고, 누가 밥을 떠 먹여 주겠는가?  
 좀더 일찌기 일어 나서 들에 가야 굶지 않은 그런 시절의 게으름뱅이 소대시  
 아마도 그때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보면 모두 다 소대시 일 것이다.

6-10. 傳說-배막디

배씨 성을 가진 막둥이? 그 사람은 여자이다.  
 엄마가 항상 비유로서 써먹는 배막디 (이그 배막디 같이 해가주고..)  
 그 사람은 요새 말로 하면 낭창하다고 할까?  
 그사람은 부지런하지 않고 머라캐도 별로 성을 내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속을 바글바글 끓게하는 부류의 사람이다.

약간은 바보스럽고 융통성도 없고...

#### 6-11. 傳說-시아바이 도끼자리요!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어느 곳에 며느리가 시집을 갔다. 그 곳에서 일상의 가난한 농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아버지가 나무를 한짐 하고 삼작(대문)을 들어 섰다.

당시 마당에는 빨래를 널기 위해서 항상 빨래 줄이 쳐 있었는데 나무짐이 이 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빨래 줄을 올려 줘야 했다.

며느리는 그만 시아버지가 그 빨래 줄을 통과할 때 잘 못 올려 줘서 시아버지는 몹시 성이 나서 찾김에 가지고 있던 도끼를 며느리에게 던져 버렸다. 근데 그게 그만 며느리는 그 도끼 자루에 잘못 맞아 죽고 말았다.

하도 억울한 며느리는 새로 변해서 나를 죽인 것은 시아버지 던진 도끼자루 때문에 죽었다고 "시아바이 도끼자리요!" 하면서 울었다는 슬픈 이야기이다.

"우우 우우우~"하면서 우는 이새는 아마도 꾀꼬리로 알고 있다.

그 소리를 자세히 그렇다고 들으면 진짜로 "시아바이도끼다리요!" 하면서 운다..

꾀꼬리는 울음소리가 참 예쁜 새인데 슬프게 들으면 이렇게 슬픈 전설을 간직하면서 울 수도 있다

#### 6-12. 傳說-앵기뭇(안계뭇)

의성군 안계면은 일찌기 면소재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크다 할 정도로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앞의 안계들은 상당히 넓어서 그곳의 쌀 "안계미"는 대구에서 알아 주기도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안계를 꼭 "앵기"라 지칭한다. "앵기 장서방" - 우리 육촌 자형이다.

그 앵기에는 개천이란 큰 못이 있는데 이게 "앵기뭇"이다.

그 "앵기뭇"은 얼마나 큰지 콩을 한되를 볶아서 한걸음에 한개를 먹으면서 못을 돌아야 겨우 돌 수 있을 정도로 넓다면서 회자 되었다.

지금 지도에 봐도 확실히 안계뭇은 넓기는 넓다. 그러나 지금의 안동댐이니 소양댐이니 하면서 워낙 큰 못을 봐 온 터여서 실제로 보면 그리 넓지 않을 것이다.

들이라곤 우리 면의 "한들"이 가장 넓게 느끼다가 경산의 들, 그리고 충북 음성군의 들, 김제 평야를 보면

그야말로 풀짜기의 눈에 불과한 것을..

그때의 안령 못은 꽤나 넓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정원 속의 못과 같이 작게 느껴짐은

그만큼 못도 많이 만들고 넓은 세상을 많이 경험해서 이리러!

어쨌건, 못의 크기는 볶은 콩의 량으로 측량하였다.

#### 6-13. 傳說-궁디산

우리 칠매지 마을 뒷산은 말바(馬岩山)이고 그 산맥을 죽 따라가서 암대 쪽으로 가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궁디산이라 한다. 봉우리가 들어어서 꼭 궁디(엉덩이)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버지 세대들은 쌀기봉이라 하였는데...

일설에 의하면 임란시에 이여송이 조선의 산하를 돌면서 인물이 많이 날것을 우려하여 이곳에도 칼로 쳐서 산이 두동강이 났다고들 전하여 지기도 한다.

또한 산정에 가면 장군의 발자욱이 있다고들 전하여 지고 있다.

근데 딱 한번 올라 가 봤는데 움푹 파인 곳은 있으나 발자욱이라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어쨌든 오늘도 궁디산은 소보의 한들 어디에서 봐도 우뚝 솟아 있다.

#### 6-14. 傳說-용시골

마을의 여러 골짜기중 고란(골안, 谷陽山)을 지나면 용시골이 있다. 또한 실제로 고개를 넘으면 용시골이란 동네도 있고 이를 더 넘으면 "이미골"이란 동네가 있어서 골짜기의 대명사로 항상 용시골-이미골로 불리곤 했다.

이 고란에서 용시골(龍水洞)로 가는 골짜기는 나무를 하러 가면서 수십 차례를 왕복한 길이기도 하다.

한참 올라가면 진짜로 용이 지나 갔는지는 모르지만

흙으로 아치형의 다리가 남아 있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가냘프게...

불게 귀한 그 때는 그게 용의 잔재인 것처럼 보였다.

그 용시골 고개 끝에는 다른 산소 보다 3배쯤 큰 산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들 끼라 그걸 장군묘라 부르기도 했다.

어쨌건 龍과 장군 원가 궁합도 맞는 갖기도 해서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 6-15. 傳說-서경

소보면의 동네에서 제법 큰 동네 가운데 西京이란 동네가 있다.

동네 가운데 초등학교도 있었던 큰 동네이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이곳이 아주 옛날 한나라의 서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사한 게 뒤의 작은 산이 태봉인데 아마도 왕손의 胎室이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명이 대릉, 봉릉이 남아 있고 그쪽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삼국시대 이전에 상주국과 서경국(둘다 역사서에서 본적이 없음)이 대치하였다 하니 작은 나라의 서울이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서울이기에 너무나 협소한 앞들이 좀 걸린다.

그래도 辰韓 12국에 경산 압양의 押督國이 포함 안된 것을 생각하면 한나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진한12국의 작은나라가 600-700가구정도 였다니,

서경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굴이나 한번 해 봤으면..

#### 6-16. 정지나무

마을 못(알령뭇)가에는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수령이 2-30(현재6-70년)여년 되었다.

원래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연자방아가 있었다 한다.

그 느티나무가 못이 생기면서 죽고 그 子木들이 지금의 정지(정자)나무 이다.

그 수호목은 베어가면 큰일이 난다는 전설이 있다.

떨감이 적었던 그때는 어쩌면 쉽게 남몰래 땀나무로 할수 있었지만 아마도 그 이유로 오랫동안 수호목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 정지나무가 비바람에 꺾인 것을 가지고 정지(부엌)문을 만들었더니 그 집에 곱사(곱추)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당시 마을에는 곱추가 있었는데 진짜인지 확인 할 수가 없다.

#### 6-17. 傳說-동제사

그 느티나무아래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날 동제를 지냈다.

마을에서 집안에 초상이라든가 병자가 없는 집에서 번갈아 지내곤 했다.

동제를 지내고 고수레 처럼 몇몇의 음식을 놔두는데 그중 종이를 집으면 공부를 잘한다 해서 그걸 집으려 한참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추위에 바들 떨면서 제주가 지계를 지고 제사 지낸 제물을 지고 갈 때를 기다려 아이들은 우루루 달려 가곤 했다.

그 동제도 중학교에 들면서 없어진 전설이 되고 말았다.

이제 내 가족의 이야기이다. 먼저 아버지

7-1. 父-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진 1922년 생이다. 개띠, 할배(1881-1964), 할매(1885-1935)이니 할배 나이 42에 낳으셨다.

형제로는 켈위의 큰고모(효령고모), 큰아버지, 사직동고모(부산고모), 사할린고모, 아버지, 작골고모이니 2남 4녀중 다섯째로 태어 나셨다.

할매는 아버지 나이 14세에 돌아 가시고 할배는 84세로 장수 하셨으나 또한 큰아버지가 50정도의 나이에 돌아 가시니 아버지가 상당부분 장남의 역할도 하셨다.

한평생을 농사 지으면서서 엄청난 노동의 대가가 너무 작은 것에 한이 드셔서 자식들에게만은 이 힘든 농사일을 시키시지 않으리란 신념으로 자식을 공부 시키기 위해 한평생을 사신 분이다.

항상 큰 울타리가 되어 주셨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天崩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물론 나이 드시곤 힘이 없으시고 능력도 줄어 들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야 진정으로 든든한 나의 버팀목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7-2. 父-형제분

큰고모는 아버지와는 약 13-15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효령의 상당한 부자집에 시집가셔서 항상 친정을 많이 생각하셨으나 고모부와는 그렇게 사이가 좋질 않으셨다. 해방전 일본에도 한참 사셨고, 늦게 서울에서 사시다가 근 90정도에 돌아가셨다.

큰 아버지 10-13년정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50정도에 전염병으로 돌아 가셨다. 당시 작골고모가 전염병으로 친정에 왔는데 고모는 낮고 큰아버진 늦게 걸려 돌아가시니 큰엄마한테 큰 아픔으로 남아지게 되었다.

사직동 고모는 7-8년정도 차이, 고모는 그렇게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형님(아들)이 아끼때 딸들은 근처에 얼씬 거리지도 못하게 하였다 한다. 형님(나보다 16-7년상)은 외동인데 부산대를 나와 수출로 날린 적이 있어서 한때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고모도 서방복은 없어서 고모부는 내가 어릴 때에도 일본에 작은 마누라를 두고 계시다가 늦게 귀국해서 설움 좀 받으셨다.

사할린고모는 아버지보다 3살 연상, 불행히도 사할린에 남아서 1989년에야 첫 귀국 그리고 1995년에야 완전 귀국하셨으나, 그 또한 가족 이 별이여서 2002년정도 다시 사할린에 들어 가셨다.

그리고 작골 고모는 아버지보다 4년하, 10여년 차의 고모부와 그래도 상당히 우애 있게 살아 가신 듯 하다. 지금은 혼자 계시고...

큰아버지만 전염병으로 일찍 돌아 가시고 다들 장수 한신 셈이다.

7-3. 父-한참 내뻘니 발톱이 빠져 있어

아버지나 할배나 큰아버지나 모두들 성질이 굉장 하셨다.

옛 어른들의 성질이야 우리 어린 시절의 약 50%의 남자 어른들은 다 그러 하셨듯 급하시고 대쪽 같으시고...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옹골하게 이야기 해본 것이 20세가 넘어서 일듯 하다. 물론 나를 아들이라고 지극히 위해 주셨건만 나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 이셨다.

그런 아버지도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3부자 중에서 성질이 가장 유순하다 하시니 할배의 성질을 알만도 하다.

아버지가 어리실 때 소풍을 하러 갔다가 놀다가 빈망태를 들고 큰아버지한테 꾸중 들을 일을 하고 살금 살금 집으로 들어 가는데 그만 큰아버지한테 들키고 그리고 큰아버지의 고향소리에 내뻘는데 정신없이 내뻘다가 나중에야 발톱이 빠진 것을 알았다니..

참으로 대단한 성질이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한테 이야기 해봤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7-4. 父-장사의 힘

아버진 육체적으로 대단한 강골이셨다.

아버진 돌아가시기 위한 병(폐암)에 걸리고서야 비로서 입원이란 것을 처음 체험 하셨으니 육체적으로 대단하셨다.

나도 체격적으로는 아버지를 닮았는데도 아버지가 70이 훨씬 넘고서도 쌀가마니등을 같이 들 땀 내가 항상 딸리곤 했다.

젊어서의 무용담은 두고 두고 전해 졌는데

말바(馬巖山)에 있는 구들 원석을 짊어 지고 오는 이야기, 쌀을 몇가마니 지고 오는 이야기...

그러나 내가 철들고는 아버지 연세는 벌써 40대 후반 이셨으니

기억에 남는 것은 나무를 하고 올 때 보면 나무집이 작은 산이 움직이는 것과 같았다.

겨울철 어둑한 초저녁에 나무하러 가신 아버지를 마중 가다 보면 그 모양새 만으로도 대충 우리 아버지임을 알았었다.....

7-5. 父-불의를 못 보는 성격

급하신 성격은 항상 남들과 부딪치기가 쉬웠다.

아버진 당신께서 생각하신 것이 옳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서 항상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술을 취해 비틀거리는 꼴도 보질 못했다.

그래서 항상 적들이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버지의 생각이 틀렸다고 보다는

그걸 주장하시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급하고 꺾질 못하기에 자주 다투곤 하셨던 것이다.

아마도 옛날 남자 어른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50%는 이 성질의 소유자인 것 같다.

요즘 내가 술먹고 비틀 거리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것은 아버지의 영향일까? 술이 약한 탓일까?

힘도 세시고 하여서 어딜 가시나 기가 죽는 법이 없었으며 기개 또한 대단했다.

타성받이는 7-8세 연상이라도 반말로 응하였고 손위 처남이신 우리외삼촌이 3세나 위인데 말을 트시고 사셨다.

내가 아파서 대구에서 어느 고향어른의 침을 맞는데 5-6세 연배임에 하대를 하자 자존심을 꺾고 상대 하시면서 아들을 위해 참으시며 치료를 부탁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하다. 어찌 보면 이러한 성격은 조선의 선비 정신이 그대로 나타난 정신세계로 이미 우리를 세대에는 그 수컷의 기개의 세계가 없어진 지 오래다.

세상을 살면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IMF이후 힘없는 가장들은 기죽으며 살아 가는 모습을 볼 때 비록 돈은 없었지만 기죽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은 부럽기만 하다.

7-6. 父-보국대로 북해도를 가다

아버진 21세에 장가를 가셨는데 당시에는 20살 넘는 총각이 별로 없어서 노총각에 장가를 가셨다 한다.

그러다가 1944년 보국대로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 가서서 북해도에 약 1년간 노동을 하셨는데 비행장을 만드는 곳이라 한다.

일본군인한테 맞은 이야기, 그리고 배가 고파서 민가의 아이누인들한테 밥 얻어 먹은 이야기,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좁은 배에 목숨을 걸고 귀국하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불초자식은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없다.

엄마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서 해방이 되자 모두들 풀려져서 춤추고 야단이 났었는데, 그때 조선인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너를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집으로 돌아 가질 못한다면서 전부 집합시켜놓고 맞았는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맞았다 한다. 저녁에 멍이 들어서 고생 고생 하였던 이야기..

아마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일본인의 눈치를 보고 조선인을 통솔해서 거기서 나왔으리라!

그때 집에서는 귀국선이 넘어져서 모두 수장 되었다는 이야기길 듣고 큰아버진 여기 저기 수소문해도 소식은 없고, 같이 같은 동료의 부인은 매일 같이 타마울에서 우리집으로 오는 등 어수선 하였는데 엄마는 마을의 점쟁이 할매한테 점을 봤는데 29-30일경에 돌아 오신다 는 점괘가 나왔다는데

다행이 아버진 29일에 돌아 오셨고 아버지가 탔던 배 앞의 배가 전복이 되었다 한다.

7-7. 父-육이오때 부역에 숨다.

6.25때 아버지 나이 29세이다. 잠깐사이의 일이지만 무수한 많은 육이오 이야기를 우리 동네 남겨두었다.

낙동강 전투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므로 아마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인민군때 동장을 한 학기네 아버지, 그 뒤에 두고 두고 씹혔다.

인민군시체를 한꺼번에 모아둔 인민군 무덤, 그리고 총알을 나르는 부역으로 나선 엄마..

아버지는 그때 청년이어서 끌려가기가 쉬웠을 것이다. 위성형님과 부역의 아궁이안에 숨어서 계셨다 한다.

늦게 발각되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이리 저리 무척이나 고단한 피난살이였을 것이다. 6.25, 그뎨 이유가 없었다. 그 뒤, 인민군을 피해서 농사일을 하다가 면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다 한다. 면에 있던 마을사람이 아버지를 보고 이야기길 해서 풀어주었는데 그때 바로 우리 마을로 오질 못하고 화창의 면사무소 마을에서 한참이나 쉬어서 그날 저녁에야 겨우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 뒤 그후유증으로 많이 아파 하셨다.

만일 그때 면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맞아 죽었을른지도 모른다.

보국대에 끌려가서 일본군에게 맞고 6.25때 인민군에 맞고 그러면서도 국가보훈자도 아닌 그시대 그세대의 삶인 것이다.

7-8. 父-전매청에서의 잠시

아버진 나를 낳기 전후에 대구의 전매청에 한 일년 근무 하셨다.

동네의 동료분과 같이 자취를 하셨는데 항상 부지런 하시고 깨끗하여 밥은 항상 해 드시고 하셨다 한다. 그러나 큰아버지가 아니 계신 고향에 할배 혼자 두시기가 힘들었고 점점 쇠약해져 가는 할배를 홀로 돌수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셨다.

평생 농사일 이외의 유일한 직업이다.

식구들은 이후에도 만일 아버지가 계속하여 전매청에 근무 하셨더라면 하고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며 가족의 가정의 역사를 말 하곤 하였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할배는 당시로서는 굉장한 장수하신 84세로 돌아 가셨는데 큰아버진 일찍 돌아 가셨고 큰아버지를 대신할 큰 종형님 마저 상에 참석할 형편이 되질 않아서 혼자 상주가 되셨다.

내 나이 여섯에 돌아 가셨음에도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당시 다산의 풍속과 또한 상주가 돌임에도 하나로 장사를 치르는게 못내 불효임을 말하는 사회여서 좀 쓸쓸한 장사로 기억한다

7-9. 父-잠을 자지 않으면 안되는 체력

아버진 대단히 강한 체력의 소유자인 반면, 잠에 해서는 굉장히 약한 면을 타고 나셨다.

농사철에 제사라도 모실 날이면 그 다음날 항상 몸이 축쳐지는 그런 체질이다.

여름에는 항상 낮잠 함숨씩 주무시고..

심지어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도 잠이 모자라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그의 피를 받은 나 또한 잠에 대해서 저리가라면 서럽다.

한시간 정도라도 덜자면 항상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게

그러다가 그다음 날에는 꼭 일찍 자서 그 잠을 보충해야만 정성 컨디션을 찾을 수 있었다.

7-10. 父-한잔에 붉어지는 술

아버진 술을 잘 못 드신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육남매는 모두다 술을 못한다. 내가 맥주 2잔의 주량인데 우리 남매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세다.

아버진 그럼에도 장날이면 항상 한잔씩 하시고 돌아 오시는데 온 장의 술은 다 드신 듯 얼굴이 붉게 물들어 오시곤 하셨다. 그리고 술을 드시면 으레 주무시곤 하신다.

농사일에는 농주가 술임에도 새참을 겸한다. 그래서 아버지도 항상 한잔씩은 하시곤 하셨다.

아버지가 술을 못하시니 술취한 사람의 꼴을 보질 못하신다. 동네에 술취해서 헛소리 하고 돌아 다니면 꼭 시비를 걸고 술취한 사람 또한 겁이 없으니 아버지와 한판 말 싸움을 하시곤 하였다.

그뎨 아버지가 그러지 말길 속으로 바랐는데 커서 내가 술을 못하고 술취해서 정신을 놓은 사람을 보면 정상으로 보질 못하는 나를 보면서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가 된다.

7-11. 父-딱 한번 도박에 손을 대다.

아버진, 대부분의 그시대 어른들은 다 그러하였겠지만 오직 농사일에 매달리면서 살아 오신 분이다.

게다가 술이 약해 평생 드신 술이 술고래가 먹은 일년분보다 적을 것이고,

그런 아버지가 한번 화투에 손을 댄 적이 있으시단다.

어릴 때 시골은 경제가 피폐하여 무수한 도박에 관한 무용담이 드리는 것을 보면 당시 농촌에는 도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가, 박대통령이 들어 서면서 많이 줄어 들은듯하다.

어느날 엄마가 아부질 기다려도 오질 않아서 물어보니 화투판에 들어 갔다 한다.

그래서 몇번에 걸쳐 사람을 시켜 그만 두라 종용 했건만 꼬박 이틀 저녁을 채우고 돌아 오셨는데, 그 뒤론 절대 손을 대지 않으셨다 한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한순간에 아마도 도박의 폐해를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 7-12. 父-소판 돈 도둑맞고

내가 초등학교 들어 가기 전에, 가난한 우리 집에 소판 돈을 모두 날리는 사건이 생겼다.

당시 해평(海平)장에서 소를 팔고 그 대금을 허리에 말아 넣고 잠에서 돌아 오는 길에서 해필 주막을 들르게 되었다.

그래서 잘 못하시던 술한잔에 별걸개 술기운에 달아서 잠시 누운 사이에, 장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 유심히 보다가 그걸 가로채었다는 이야기도.

당시의 소 값은 그야말로 거의 1/3에 해당하는 재산에 가깝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황소 값이 6만원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깜깜한 밤, 호롱불 밑에서 그이야기는 많이도 들었을 것이기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그 돈을 날린 아부지와 엄마의 낙담은 그 깊이가 아마도 몇 길은 될 것이다.

#### 7-13. 父-자식에 대한 교육 열

유학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살아오신 우리네의 부모연배는 자식의 교육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셨다.

사농공상이 무너지고 누구든 공부하면 출세를 할수 있던 그런 시절, 그 힘든 농사일을 평생 지어도 배부르게 먹질 못하고, 따뜻하게 입질 못했던 세대의 바람은 오로지 자식의 출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 시키고자, 초등학교때부터 군위읍내나, 대구에 전학시켜 공부하게 하였고, 당시 면내의 중학교는 세운지 겨우 3-4년 밖에 안되어서 중학교때부터 가는 이도 많고, 고등학교 이상은 대구에 유학 가는 것이 당연 하였다.

나도 귀한 아들이란 굴레에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대구에 유학가게 되었다.

누구는 큰집, 작은집에 기거 하였지만 나는 누나들이 커서 누나와 자취를 하였는데, 요새 3학년짜리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 그 귀한 아들을 미래에 위해 일찍이 부모슬하를 떠나게 함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이 아직도 헤메고 있음은 심히 부모께 불효를 하고 있어 죄송하기 그지 없다.

#### 7-14. 父-자식 사랑

아부진 남녀의 차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육남매중 위로 4남매는 거의 아버지를 무서워하였고, 나 역시 20세가 될 때까지 말도 잘 못 부치는 그런 분이다.

아래 2남매는 40이 넘어서 낳은 자식 이여서인지 끝에서 둘째인 여동생이 아버지 등에 업혀있는 것을 보고 누나들이 깜짝 놀랐다 한다.

아부진,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기다리면서 사셨다.

도회지에 나간 자식이 일요일 최소한 격주에 오질 않으면 기다리고 또 묻고 하신다.

그래서 자식을 또한 대구에 살면 당연히 2주에 1회는 찾아 가보곤 하였다. 그리고 여름 휴가이면 내려와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고향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우리 마누라에는 상당한 스트레스였지만 당연시하였다.

그리고 사랑을 줌에 있어서는 있어서 외손이건 친손이건 같다.

다만, 혈통의 흐름이 아들로 간다는 믿음은 확고 하셔서, 그에 대해선 누구든 이의를 달지 못한다. 딸들은 그것이 못내 서운하였지만, 아버지의 사고를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 들여서 나름대로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것 같다. 이 모두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임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 7-15. 父-사랑방 책 읽는 모습

겨울철, 농한기 저녁을 먹고 호롱불 아래서 아버지가 책을 읽으신다.

그 옆에 글을 잘 모르시는 엄마와 뒷집 아집이 그 읽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3명이서 책을 읽는 셈에 된다.

한참 읽으시다가, "허 거참! 그래 됐구나! 그래 가주고 서방 살리라고 거 들어 갔구나!" 등등..

책의 이야기와 같이 세분이서 서로 이야기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다가

"오는 여까지만 일고 널 또 일자!" 하시면서 하루에 10여페이지를 읽으시는 것 같다.

책은 16절지 정도의 책에 100여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이었는데

"조웅전, 육단춘전, 구운몽 등등"이다.

읽으시는 톤도 운문체의 특유한 것인데 약간의 노래 가락이 들어 간 듯하다.

아마도 옛어른들의 전통 음울일 것이다. 한참 읽으시다가 "가설나무네(그래서란 뜻)"하시면서 가끔씩 쉬는 모습이 어른 거린다.

요즘처럼, 책인 흔한 시절도 아니고, TV나 인터넷등도 없던 시절,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지 않은 정보를 그렇게 습득하셨다.

#### 7-16. 父-투병생활

아부진, 77세가 되던 이른 봄에 폐암을 진단 받으셨다.

그리고 그때까지 병원에 한번 입원 하지 않으셔서, 병원 하루 입원하는게 그렇게도 힘들어 하셨다.

그때, 우리집 형편은 매제가 돈을 많이 벌던 때라 형편도 좋고 하였지만 수술이 되질 않아서 한약과 민간요법으로 치료 하였는데 약 1년3개월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3개월은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끝내 암이란 병명도 몰라서이신지, 사시겠다는 의지가 그렇게도 강하셨음에도 돌아 가시고 만것이다.

늦게는 병수발 하시던 엄마가 더 힘들어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듯한 고비 끝에 우리결을 떠나셨다. 마지막까지 장남이 내가 임종을 지키지 못할까봐 내가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5분만에 돌아 가신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은 장남인 나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돌아 왔다.

국어 책에 나오는 천붕(天崩)이란 말을 왜 했는지 알게 해 주었다.

살아계실 때는 심적으로 아버지가 계심을 큰 백으로 생각했는데 그 백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식을 위했음에도, 나는 옳게 한번 아버지를 부양 해 드리지도 못하고 매번 받기만 하다가 그렇게 아부진 나의 결을 떠 나셨다.

#### 7-21. 傳父童話-황굴레와 때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질로 질로 가다익게네 해빠지는 소리가 "쿵" 꺾는기라  
그래가 사방을 둘러 보이게네 돈뚜랑 밑에 짐이 모랑모랑 나그던  
그래가주, 뭐하노 싶어 가보이게네 황골레가 때때를 내놓고 미역국을 먹니라꼬  
"후루루"카이게네 뜨거거덩 "앗뜨거라"카민서 쓰다듬으께네  
입뻐이가 다 까졌뻐단다.

(해석)

옛날 어느 나그네가 길을 따라 가노라니 해가 "쿵"하면서 빠졌단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 보니 돈뚜렁 아래서 짐이 모락모락 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가 보니 방아개비가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먹느라  
"후루루"하면서 마시니 뜨거웠어! 그래서 "아 뜨거" 하면서 손으로 쓰다듬으니  
입술 앞이 가 꺼져버렸단다.

7-22. 傳父童話-이코약

옛날에 어떤 등시가 살았는기라! 하루는 저 아버지가 등시아들보고  
"야야! 내머리 아프이게네 약빠 가서 감기약 좀 사오나"  
"알았심더" 카민서러 이자뿌까바 "감기약 감기약"카민서 가다 보이게네  
도랑이 하나 있는기라! 그래가 풀쩍 뛰 넘었는데  
물이 튕기가지 "이코"했는데 고만 무슨 약인지 생각이 안나는기라!  
"뭐디라 뭐디라" 카다가 "맞다 이코약"카민서 약빠 가가지고  
"약주소" "무슨약?" "이코약요" "떼끼놈 이코약이 어딴노?"

(해석)

옛날 어떤 등신(좀 모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등신 아들 보고  
"야야! 내가 머리 아프니 약방에 가서 감기약 좀 사오너라"  
"알았습니다"하면서, 혹시 잊어 버릴까 "감기약 감기약"하면서 가다가 보니  
도랑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풀쩍 뛰어 넘었는데  
물이 튕겨서 "이코"하였는데 그만 무슨약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지? 뭐지?' 하다가 "맞다 이코약!"하면서 약방에 가서는  
"약사러 왔는데요" "무슨약?" "이코약 있어요?" "이놈 약중에 이코약이 어디 있니?"

7-23. 傳父童話- 꼬부랑 할마이

꼬부랑 할마이가 꼬부랑 짝대이를 짚고 꼬부랑고개를 꼬부랑 꼬부랑 올라 가다익게네  
꼬부랑 똥이 내랴고등 그래가 꼬부랑 나무밑에 가가지고 꼬부랑 똥을 꼬부랑 꼬부랑 누다익게네 꼬부랑 개가 와가지고 꼬부랑 똥을 멀라 카는기라!

그래가 꼬부랑 할마이가 꼬부랑 짝대기로 꼬부랑 개를 탁 때리이게네 꼬부랑개가 꼬부랑 깨갱 꼬부랑 깨갱 카민서 내뻐뻐드란다!

(해석)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고개를 올라 가는데 똥이 마려워서 꼬부랑 나무 아래서 꼬부랑 똥을 꼬부랑 꼬부랑 누고 있는데 꼬부랑 개가 와서 할머니의 꼬부랑 똥을 먹으려 해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로 탁 때리니 꼬부랑 개가 "꼬부랑 깨갱 꼬부랑 깨갱" 하면서 달아 났단다!

7-24. 傳父童話-뚜끼비와 도둑

한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어떤사람이 새미(샘)옆에 있드라이게네(있다니까)  
뚜끼비(뚜꺼비) 한 마리가 영금 영금 기가는 기라(거라)! 그래가 뭐하노 싶어가지고 구경하다이게네  
파리 한 마리를 보고는 고개를 쏙 내밀디만도 납죽히 업드리는 기라,  
그카디(기러다니) 파리를 탁 잡아 먹고는 또 영금영금 기가는 기라!  
그래가주고 그사람은 집에 와서 잘라고 누버(누워) 있는데, 마침 그때 도둑놈이 하나 살금 살금 눈치를 보민서 들어오는기라! 근데 그때마침 방안에 있던 그사람은 잠이 안와서 아께(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서는  
"영금영금 긴다" 카이게네(라고 하니까), 밖에 있던 도둑놈은 깜짝 놀라 납죽히 업드리니  
안에서"납죽이 업드린다"카는기라! 깜짝 놀란 도둑놈은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가 해 고개를 내밀어 두리번 거리니 "고개를 쏙 내민다"카거든

그래가, 다시 방안으로 살며시 가니 "살금 살금 긴다" 카그던,

그래가, 문구멍으로 속에 누가 있나 싶어서 살며시 보려 하는데 천장(천정)을 보면서

"저 눈까리(눈깔)"카거든, 깜짝 노란 도둑놈은 "귀신이다" 카민서러 내뻐단다!

7-25. 傳父童話-토끼와 녹디영감,

앤날(옛날)에 어떤 마을에 녹디(녹두)영감이 살았는기라! 근데 밭에 녹디를 심어났는데 이노무 토끼란놈이 녹디를 뜯어 먹으사 요노무 토끼새끼들 카민서러(라고 하면서)

녹디밭에 가가(가서), 죽은체 늙어있다이게네(누워서 있으려니) 토끼란놈들이 녹디밭에 와서는 녹디영감을 보고 "녹디영감 죽었다 칠기다발 건너라"카민서 녹디영감을 묶으려 하니까, 그때 이때다 카미 토끼를 잡았는데 애꾸토끼를 한 마리 잡았는기라!

그래가(그래서), 집에 와가 할머니한테 "할마이, 할마이 내 토끼 한바리 잡아 왔다"

할마이(할머니)는 동솔에 불을 때고 토끼를 잡아 넣어 불을 때는데, 토끼는 버떡(얼른) 안방에 있는 아기를 동솔에 넣어두고 지(자기)는 이불 속에 들어가 "응애 응애"하미 우이게네(우니까), 할마이는 그래, "우리손자 쪼매난 기다리라! 토끼 살아 가께"

그래가, 고기를 영감하고 뜯어 먹는데 "허어 이건 우리 손자 발갈다"카민서 먹고

"허어 이건 우리 손자 손굿대(손과 같다)" 카민서 먹다니, 이불 속에 있는 토끼는 "내요 이있지롱(나 여기 있지롱)"카민서 장독대로 뻐뻐는기라(달아나 버린거야!)

성질이 난 녹디영감은 시작대이(기제 작대기)가지고 작독대를 후리 치니 장독은 다깨지고 토끼는 지붕으로 내뻐뻐서

"요놈"카민서 지붕에 불을 지르니 토끼는 산으로 내달리고 초가삼간 다 타뿔단다

7-26. 傳父童話-아버지를 머슴이라 속인 아이,

어느 마실에 농사일을 하던 아버지는 아들하나를 객지에 유학을 보낸다. 어느 방학 아들의 친구가 그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남루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기 싫어서 아버지를 머슴이라 속였다.

옆에서 새끼를 꼬면서 들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체면을 세우주고 있다가 친구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들은 크게 호통을 쳐서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

그당시 사회에서는 사농공상이 무너지고 억눌려 있던 농민들은 자기 자식 대에선 이 힘들고 고된 일을 물려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공부를 시켰다.

오로지 장남 하나에 투자하고 나머지 아들과 딸들이 희생하던 그 시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 부류의 이야기 중, 어느 아이아 대구(대도시)에 공부를 하러 보냈는데 중학생이 되자 영어를 공부했다. 방학 때 집에 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떨이를 가르키며 이걸 영어로 뭐라 하노? 하자 "재떨미!" 그럼 수도는 "틀며씨!" 하니 허거참!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하다 그쟈!"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7-27. 傳四從叔母童話-喪家僧舞老人哭

조선시대 속종임금은 밀행을 좋아 하였다. 어느날, 장안의 거리를 미행하다가 어느집을 지나는데 하도 괴이하였다. 상복은 입은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머리를 깎은 여인은 수건을 두르고 춤을 추고, 그리고 그 옆에서 노인은 통곡을 하는 모습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괴이하게 여긴 속종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연유를 물었는데 그 대답인 즉은

가난한 선비집안인 그는 몇 차례에 걸친 과거 낙방으로 먹을 양식마저 동이 났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 팔아서 그 돈으로 시아버지의 생일 상을 차려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돈이 없던 아들은 항상 상복으로 단벌로 지내다가 아버지의 생신날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린다고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 서러운 생일 상을 받아 들은 아버지는 그 가난의 슬픔과 아들 부부의 효심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는 모습이 지나 가는 나그네에게는 괴이하게 보였던 것 이었다. 속종은 그들에게 다음 과거에는 반드시 불을 것이니 열심히 하라 하고 그 집을 떠났다.

다음 과거에 나선 아들은 시제를 보자 희한하게도 상가승무노인곡(상가집에서 노래 부르고 스님은 춤을 추고 노인은 곡을 한다)라는 시제가 나타 나자, 그 객의 말을 생각하고 그간이 집안일을 그대로 적으니 속종이 그를 급제 시키고, 그리고 그 집안은 그로부터 행복시작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직하게 책을 읽는 조선의 선비와 그리고 효심에 감복한 속종의 이 이야기는 뒷집 아집(4종숙모)이 해 주어쓴데 중학교 3학년때 국어 선생님이 한번 더 해주신 이야기이다.

8-1. 母-조실 부모하고

엄마는 진짜로 조실부모하셨다. 엄마의 나이 돌도 되기 전에 이할배(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할매(외할머니)마저 7살에 돌아가시니 요즘으로 치면 그야말로 고아이다. 다행히 당시에는 일가가 모여 사는 동족촌이고 형제분이 많아서 큰이아재(큰외숙부)와 큰이모가 엄마에 비해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니 이미 어른의 몫을 하던 차라 형제분의 슬하에서 자라난 셈이 된다.

당시의 풍습은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하는 쪽이고 보면 7살에 이미 20여세가 된 큰 이모는 이미 시집을 갔을 것이고 10대 후반의 큰이아재도 장성하였을 것 이어서 요즘 생각하는 그런 천애의 고아는 아니었을 것이나, 부모를 일찍 여인 설움은 오래두고 가슴에 쌓고 왔을 것이다.

8-2. 母-형제간의 우애

엄마의 형제분은 모두 4남매인데 이모 큰이아재 작은이아재 그리고 엄마이다. 작은이아재가 엄마보다 7살이 더하니 다른 형제분은 10살이상 이 차이가 난다. 아마도 일찍여의신 이할배 할매가 건강이 썩 좋지 않아서 늦게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모는 90살정도에 돌아가셨을 정도로 장수 하였는데 참 목소리도 굵고 여성스런 분이시다. 큰이아재 또한 항상 이야기 하길 좋아하는 부드러운 성격이나 유일하게 60이 조금 넘어서 돌아 가셨다. 그리고 작은이아재는 유달리 엄마와 우애가 깊어서 올해(2007)가 89이신데 항상 엄마 생신이 되면 잊지 않고 챙기신다. 아직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외에 잘 잡수시고 그리고 담배도 한갑 이상을 태우신다.

엄마도 골골 80이라고 항상 약한 몸을 가지셨으나 올해 82살인데 나이에 비해 정정한 것을 보면 장수의 피를 타고 나셨나 보다. 형제분 모두가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시고 유난히 오랫동안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시면서 지내오신 형제분들이다.

8-3. 母-외할머니와 외가를 가다.

엄마한테서 들은 외할머니의 기억은 유일하게 엄마의 외가를 간 기억이다. 엄마의 외가는 산허리(친가)도 첩첩산중이지만 거기서 평지마을인 서경을 가로질러서 다시 태조산 자락에 있는 산골마을으로 알고 있다.

엄마를 업은 외할머니는 한밤에 친정길을 나들이 하시는데, 어두운 들길 속에서 아이를 업고 무서움에서 간간히 음음 하면서 소리를 내신 것을 엄마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길이 그때 아마도 산짐승들이 많이 출몰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엄마의 엄마(이할매)기억은 단편적인 것 밖에 없다. 이할배 기억은 전혀 없고... 내가 장가를 가고 그리고 자식을 다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 엄마가 건재함은 나는 엄마가 누리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8-4. 母-고되고 힘든 시집살이

엄마는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없었다. 할매가 1935년 젊은 나이에 돌아 가셨으니 올라부지 나이 14세때이다. 그대신 큰엄마와 아버지의 시집살이이다.

큰엄마는 천성적으로 부엌에 들어 가는 것을 싫어하여 엄마가 시집오곤 그 뒤 한번도 정지에(부엌에) 들어가질 않았다. 엄마가 10여년 동안 정지꾼이 되고, 그뒤 큰 아집(사촌형수)가 뒤를 이었으니 말이다. 한십년 간 홀시아버지와 웃동서 그리고 조카들과 살면서 가난한 안살림을 맡았으니 밥과 빨래, 바느질등등... 그 안살림의 고생은 말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어부진 처음에 엄마가 별로 마음에 안드셨는지 결혼후 몇 년간은 조카들과 같이 잠을 잔 것을 보면, 별로 챙겨 주시길 않으셨다 한다.

그리고 할배 큰아버지 아버지가 다 불같은 성격이지, 못에 빨래를 하러가서 죽고 싶었지만 이미 아이(누나)의 웃는 모습에 죽을수가 없었다 한다. 그리고, 분가 뒤에도 가난과 불같은 아버지 성격에 비우 맞추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물론 어부진 나이가 들면서 많이 성격이 수그러 들었지만, 엄마나이 74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제야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여생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 8-5. 母-비상한 기억력

엄마는 학력이 없다. 어부진 그래도 서당에 1년인가 다니는데.. 그래서 엄마는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 요즘에 와서 아라비아 숫자와 약간의 한글은 아시지만...

옛날에는 대소사의 날자 특히 제삿날, 생일날등이 중요하다. 물론 지차여서 직접 제사는 모시진 않지만, 내가 소시적만 해도 설에 우리 문중의 설제사를 지내는 곳만도 8집이었으니, 그 집들의 제사가 2개씩만 해도 16개의 제사날이 있었다.

그 제삿날 아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동네아이들의 생일날 몇시에 낳았는지도 다 안다. 심지의 다른 친척 아집들이 자기 아들의 생일을 엄마에게 묻곤 하였다. 아마도 비상한 총기가 있었는데다가, 글을 모르는 모든 것을 기억에 의존하였으니 그 날짜에 대한 기억력은 배가 되었겠지만 가끔씩 듣는 엄마의 기억력은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언제 누가 몇 년전 몇월 며칠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누가 몇월에 결혼을 하였다든가, 타작을 하고 나니 누구집 아이를 낳았다던가....

그런 엄마의 기억력도 나이 칠십이 지나자 쇠퇴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팔십이 넘은 지금도 엄마의 기억력은 지금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

#### 8-6. 母-약골

엄마는 약골이다. 얼마전에 신체검사표에 나온 엄마는 키 148에 몸무게 36이다. 키는 나이가 들어 쭈뼛었고, 아마 젊었을 땐 155는 된 것 같다. 그런데 몸무게는 40에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인다.

항상 골골하여 죽을 고비도 3번인가 넘겼다. 내보다 10살이 적은 막내동생이 애기일때, 심한 관절염을 알았는데, 막내를 두고 죽는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길 하곤하고, 또한 나도 어렸지만 또렷히 기억되고 있다.

그 뒤에도 크고 작은 병이 엄마를 괴롭혔고, 아버지가 마지막 편찮을 땐 간병하던 엄마가 더 위태롭게 보였을 정도였다. 항상 골골 하시더니, 그리 건강하시던 어부진 병원 한번 안가보다가 한번의 병으로 돌아 가셨는데, 엄마는 아직 나름대로의 건강을 유지함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다. 아마도 힘들고 지쳤을때 작은 병들은 몸을 쉬게 만들어 오늘의 엄마가 계신 것 같다.

#### 8-7. 母-노후생활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1999년부터 약 9년간을 고향에서 홀로 계셨다.

어릴 때 고아로서 외로운 삶을 사시고, 성년이 되어서 가난과 남편의 시집살이에 무척이나 고단한 삶을 사셨고, 아버지 병간호를 한 1년하면서 무척 고생하셨다. 그후 지아비를 먼저보낸 엄마의 마지막십년은 자신의 입장으로는 황금과 같은 시간처럼 보인다. 비록 몸은 아주 건강하진 않았지만, 걷는데 지장이 없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숨이 좀 차는 것과 병원에 2번인가 입원하여 한두달 쉰 것을 제외하곤 큰 무리가 없었다.

엄마는 아버지와 달리 자식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도 않았다. 해서 우리 남매들은 아버지가 계실때는 대동생들은 최소 한달에 1-3회는 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에는 엄마의 밥하는 것을 덜기 위해서도 덜가게 되고 명절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담도 자지 않게 되었다. 엄마는 눈치가 빨라서 남에게 싫은 말은 하지 않아서 친구도 많았고 그리고 적당히용통성도 있어서남을 위한 듯하면서도 그렇게 손해보지도 않게 처신을 하셨다.

그렇게 동네 마을회관에서 같이 밥해먹고 하면서 노년을 보냈다. 다행히 육남매중 크게 속삭이는 자식도 없고 하니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끔은 버스타고 놀러도 가고..

엄마는 생에 대한 집착도 아버지에 비해 훨씬 없어서 마치 도인을 보는듯하다. 어부진 삶에 대한 집착을 끝까지 버리진 아니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연했다. 다만, 아파서 자식마저도 당신을 못 돌봐줄 형편이 되었을 때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다.

#### 8-8.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며(임중)

옛날에는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불효자식이라 했다. 농경사회이고 그리고 멀리 원지로 많이 떠나 살지 않은 까닭에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식 또한 적었을 것이나, 요즘 처럼 부모 자식이 많이 떨어져 살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세상에서는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그런 면으로 보면 나는 양친의 임종을 다 본 효자이다.

선친은 폐암으로 고생하시면서 말년에 6개월 정도는 병수발하는 엄마가 더 빨리 지칠까 염려할 정도로 고생하셨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 1개월 전쯤부터 형제간에 당번을 두어 엄마와 같이 고향집에서 수발하였는데 내가 당번을 하고 남동생과 교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하루밤을 자고 아침에 급히 연락이 와서 고향으로 향했는데 도착하자마자 5분도 되지 않아서 깊은 숨을 쉬시면서 돌아 가셨다. 나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 3명에서 임종을 했는데 장남인 내가 도착하기까지 선친은 무척이나 힘들게 기다리신게 분명하다.

선비는 노년에 찾아온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되어서 병원에서 약 40여일간 고생하시다가 돌아 가셨다. 살아 생전에 죽는 고를 무척 걱정을 하였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이생에서 인연 지어진 자식들의 간호와 조카 질부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의 병문안을 다 받고 자식들의 적당한 효도

가 지쳐가기 전에 돌아 가셨는데, 또한 내가 당번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하루밤을 보내니 연락이 와서 병원에 도착하니 선친과는 달리 내가 온 것에 대한 약간의 반응을 보인 뒤 약 한시간 뒤에 잠든 듯 돌아 가셨다. 선비 역시 장남인 내가 온 것을 기다린 듯 모든 남매가 임종을 지키겠끔 배려한 것이 틀림이 없다.

부모와 이별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진다하여 천붕(天崩)이라 했다. 돌이켜 보면 이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떠나 보내기에서 나는 부모께 역으로 임종을 지키게 만들것끔 하신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으신, 마지막까지 내리 사랑을 주신 부모가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부모가 가슴속 깊이 그림다.

#### 9-1. 祖父-송농 드시는 모습, 우리집으로 오시는 모습

할배는 1881년에 나서서 1964년에 돌아가시니 우리나라이 84세이시다. 당시의 나이로 따지면 60만 넘어도 노인대접을 받을 시대여서 굉장히 장수를 하셨다.

내 나이 6세에 돌아 가셨으니, 내 기억의 할배는 매우 단편적이다. 할배는 항상 큰집 사랑방에서 계시면서 밥을 드시곤 송농을 드시는데, 흰 수염 속으로 사발이 들어가는 것이 기억나는 게 아마도 그리 신통하였나 보다.

그리고 가끔 작은 아들인 울집에 업혀서 오시는 기억, 그리고 할배가 돌아 가셨을때 아버지가 상복을 입고 우시는데 내가 동갑인 종질과 구경하는 모습 등이다.

#### 9-2. 祖父-아들과 딸의 차별(감나무, 또분)

할배는 옛어른들이 다 그렇듯 아들과 딸을 엄청나게 차별 하셨다.

작은 아들인 우리 아버지가 딸 다섯을 낳고 나를 낳으니, 매우 기뻐하였으므로 우리 누나들은 매일 나를 업고 할배 문안을 가야 했다. 그러나 손녀한테는 맨날 멀러카니 누나들은 서로가 할배 문안 가라고 미루곤 하였다 한다.

우리 작은 누나가 하루는 감나무에 올라가서 홍시를 따고 있는데 마침 할배가 그리로 오셨는데 들길까바 꼼짝도 안하고 있었는데 할배가 보시고, “이노무 가시나가 어데 거 올라 가 있노?” 라고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촌형제가 3남 1녀임에도 불구하고 사촌누나가 태어나가 또 딸을 낳아서 분하다고 “또분”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 등등으로 매우 아들딸 차별이 심했다.

할배는 할매가 1935년에 돌아 가시니 약 30년간을 홀아비로 살으셨다. 늙으셔선 무척 낚시를 즐겼다 한다. 이런 저런 할배의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막상 할배의 사진 하나도 없다가, 사할린 고모가 1989년에 한국에 나오시면서 할배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른이 되어서 보는 한 60정도의 할배는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신다.

#### 9-3. 祖母-교회에 다니시다.

할매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 가셨다. 진이가(아버지의 외가)는 비안으로 생각된다.

할매의 성씨는 김해배씨이고, 택호는 기동띠(기동택)인데 일제 때 호적을 만들면서 성과 택호를 합쳐서 배기동이란 함자를 가지게 되었다.

할매는 당시에 범바(虎岩)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는데, 아마도 전통의 신앙에다가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기복기양의 형태였을 것이다. 할매가 교회에 다녀오시는 길목에서 아버지 기다리시다가 같이 오곤 하였다 한다.

할매는 왜정때 돌아가셔서, 당시 시장 뒷산에 마을공동묘지에 산소를 썼는데, 그뒤 해방이 되고 할배는 할매산소를 고란의 응봉(鷹峰)으로 이장하셨다. 당시 지관을 데리고 묘터를 잡았지만 지금은 산속 깊은 곳이라 가기가 힘든 곳이 되어 버렸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할매 산소를 무척이나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응지인데다가 산이 깊어서 띠(잔디)도 안살고 해서 황량하였다. 아버지 생전에 할매산소를 할배 옆으로 모시려 하였으나 숙질간(아버지와 종형님)의 의견이 맞질 않아 결국 이장을 못했는데 못내 아쉬운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할매산소를 유언하셨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잘 알지만, 내가 생전에 할배산소로 이장 할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유언에 응할수 있을면 좋을 텐데...

#### 9-4. 曾祖父(1845-1930)-벼슬을 얻다

증증조부는 1845년에 생하시고 1930년에 졸하시니 매우 장수 하셨다. 고조부는 29세의 젊은 나이세 별세하시니 젊어서 홀로된 고조모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증조부는 항상 잘 때 고조모의 치마를 잡고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증조부는 당시 조정에 명성황후의 민문의 세력이 세도를 펼치자 민문의 일원으로 서울에 올라 가셔서 벼슬을 얻으셨다. 당시 증조부는 사촌이던 증증조부(俊鎬)와 그리고 당시 마을에는 총 6명이 벼슬을 얻었다. 증조부가 당시에 받았던 교지는 다음과 같다.

閔□鎬爲 嘉義大夫 行龍驤衛 護軍者 光緒7年(1880) 9月

가의대부(조선중반 嘉靖大夫에서바뵈 종2품), 용양위(조선군의 5위중 좌위, 1882년 폐지됨), 호군(5위에 속한 정사품 무관, 고려시 장군, 후에는 봉록만 지급하고 직무는 없었슴)

그리고 당시 일가가 받은 벼슬

閔俊鎬(1844-1925, 증증조부) - 參奉(참봉:종9품)

閔應鎬(1827-1902, 5증증조부, 13촌) - 通訓大夫(弘基 고조부)

동훈대부(정3품 하계-당하관의 최고지위, 1865년부터는 종친 의빈도 사용)

閔影輝(1895(?)-1938, 6증조부, 14촌)- 參奉, 민응호의 長子(弘基 증조부)

閔泳憲(1862-1933, 6증증조부, 14촌)-參奉, 민응호의 차자(경배 고조부)

閔致榮(1834-1906, 5증 고조부, 12촌)-忠訓府都事(병호 고조부)

충훈부(공신의 자손을 위한 관청, 1894년 의정부로) 도사(종5품)

9-5. 안령의 조상

8대조 : 말바(馬巖山)에 모셨는데 소보의 입향조이다. 할배의 산소 주위엔 10여기의 다른 산소가 있어서 한 200여명의 잔디구장 같은 느낌을 준다. 마을 뒷산이라 어릴 때 거기서 놀기도 하였고, 정월 대보름 때 달 보러 갈 때 그 산 아래서 불장난도 많이 하였다.

10월 묘사때 가장 먼저 묘사를 지내는데 마을 전체의 제관이 모이므로 그 모습 또한 장관이다.

7대조 : 대송(大松) 고란에 모셨다.

6대조 : 할배는 바람재(風嶺: 군위가는 고개)에 계셨고 할배는 고란에 산소가 있는데 바람재로 벌초와 묘사지내기가 힘들어서 10여년전에 고란으로 합장하였으나 아직도 바람재 할배라 부른다. 합장할시 할배의 원자리가 없어서 오른자리에 모셨다.

5대조 : 조부의 산소는 낙거리에 있고 조모는 두분이신데 암대에 있다. 할배 두분의 중간에는 너른 공터가 있어서 할배가 사이에 들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낙거리에 구부(舅婦)간, 암대에는 할배 두분의 산소를 썼는지 궁금하다...

고조 : 고조부는 일찍 돌아 가셔서 산소가 고란(谷陽山)에 있고 할배는 희한하게 시시이신 5대조부의 산소(낙거리, 掛簾)에 있다.

9-6 청송의 조상

16대조(興) : 할배는 태종의 처남이자 원경왕후의 동생인 無疾할배의 아들이다. 이후 無疾할배가 귀양가서 죽임을 당하자 그 아드님(蠹)은 세종 22년에서야 여흥부원군(蠹)의 제사를 모시게 되어서 복권이 된다. 그러나 할배는 돌연 남쪽인 청송으로 내려와서 청송 입향조가 된다 그래서 호도 南隱이다. 그의 유택지에는 二樂堂이 있다고 청송군지는 전한다.

15대조(世卿) : 할배는 鶴峰(金誠一)의 외조부이다. 벼슬은 秉節校尉를 지내셨고 조광조등과도 교류 하셨다 한다. 그의 동생(世貞) 또한 실록에 등장하고 효자로도 기록되었으나 조광조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신다.

14대조(祥) : 예빈사 副正을 지내시고 서경덕 등과도 교류 하셨다.

13대(樞) : 明智齋할배, 학봉집에 의하면 어릴때 고모댁인 학봉의 집에서 학봉과 같이 자랐으며 고모부 청계 김덕에게 학문을 배웠다. 명지세 세우고 거기서 많은 제자가 나왔으며 그의 제자 東溪(조형도)집에도 나와 있다. 25책의 저서가 있으나 화재로 전해지지 않고, 中樞府事에 제수 된다. 학봉집, 동계집, 청송향교지, 청송군지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

12대(宗孝) : 학봉의 문인,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 棠陰亭에 기거 하였고, 개암집(開巖集)에 의하면 윤원형처단을 위한 연명 상소도 하였다.

11대(繼齋) : 청송군지에 의하면 樂齋를 지어서 기거 하였다 한다.

10대(好裕) : 청송군지에 의하면 3형제가 追慕齋를 지어 유하였다 한다.

9대(光表) : 청송향교지 의하면 사마시(생원)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나의 재종 형님이 이 할배의 증손이 없자(서자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전에 양자를 갔다. 그집에 현재도 그 교지가 전한다.

10-1. 구전노래 -대추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배추야 대추야 널쩌라. 아들이 아들이 주라. 할배요 야보소 덕찌놈 침준다.

이노래는 대추나무 아래서 대추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대추가 벌레를 먹어서 빨리 익던가 하여 바람이 불면 빨리 떨어진다. 아이들은 이걸 못 참아서 돌을 던져서 대추를 떨어 뜨리곤 하였다. 대추나무 주인이 보면 멀어졌지만, 별로 여의치 아니하고 대추를 따 먹은 것 같다.

10-2. 구전노래-공수만

공공 공수만 자네 집이 어딩공, 이산 저산 넘어서 삼팔선이 내집일세

차나마나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표준어로는 썩 썩 썩서방일 것으로 생각된다. 삼팔선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해방이후에 나온 노래인듯 하다.

10-3. 구전노래-차나마나

차나 마나 니 어데 갔또? 새잡으러 갔다. 몇 마리 잡았노? 열 마리 잡았다. 찌지먹고 뽕아 먹고 개구리 자지 돌개동

차나마나란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서 발을 일렬로 늘어 놓고 손가락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씩 짚어 나가다가 노래가 끝나는 발을 뺀다. 그래서 가장 먼저 두발이 빠진 사람이 1등이 되고 순서가 결정된다. 순서에 의해 1등이 때리고 나머지는 순서에 의해 손을 쌓아서 때리는데 때리는 순간에 피해도 된다. 손바닥의초고 위는 최고 꼴찌가 되니 맞을 확률도 가장 높다.

10-4. 구전노래-가이가

가이가 가다가 거거 거렁에 고이고 고기를 잡아 가, 구이 구 국을 끼리가 나이나 나도 한그릇 너이너 너도 한그릇 다이다 다 멋다 더이더 더 도고 어이어 없다

한글의 가나다라를 공부하는 노래

10-5. 구전노래 -할배취

저 건너 쥐봐라 무슨쥐 할배 자기 빨갈다

할배를 놀리면서 부르는 노래

10-6. 구전노래-사꾸라

사꾸라 사꾸라 요요이는 사꾸라와 내와 같은 꼬끼리 이사야 이사야 도모도모니

동동 동대문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아마도 일제의 잔재의노래이다.

사꾸라 사꾸라 요요기의 사꾸라가 피었다... 그 뒤는 해석이 불가하다.

#### 10-7. 구전노래-사랑가

꽃같은 처자가 꽃밭을 메는데 반달같은 총각총각이 여여 내손목 잡노라.

야 이 총각아 이손목 놓아라 호래이 같은 우리 오빠 조기 망보고 있노라.

아이 처자야 그런 말 말아라 호래이 같은 너거 오빠 고로 내 처남 되노라. 쪼이나 쪼이나 또꾸쇼

이노래는 밤에 같이 어른들이 노래부르면서 놀때 부르던 노래인데, 가요에는 있는지 모르나 가요와 민요가 짬뽕이 된 노래이다. 후렴구에 쪼이나 쪼이나는 일본의 잔재이다.

#### 10-8. 구전노래-백발가- 유사 회심곡

회심곡과 매우 유사하다. 아주 긴 노래인데, 슬프고 슬픈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ashfo 하였다. 이노래는 특히 앞집의 다곡아집(4중형수)이 잘 불렀는데 그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다시 더들울수 없는 노래가 된 것 같다.

#### 10-9. 구전노래-파랑새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디남케 안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미 간다.

대표적인 우리 민요인데 주로 자장가로 이용된 듯하다.

#### 10-10. 구전노래-추자

매가 자를 업고 자나무 밑에 가서 자야 자야 널쩌라 우리 자자 주그러

개가 개를 물고 개 속을 지나다가 개한테 놀래 개속으로 사라졌다.

노래라기 보다는 수지(수수께끼)이다.

(할)매가 (손)자를 업고 (추)자나무 밑에 가서 (추)자야 (추)자야 떨어쩌라 우리 (손)자 주어 주게 : 추자(호두)

(술)개가 (조)개를 물고 (안)개 속을 지나 가다가 (번)개한테 놀라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 10-11 구전노래-기차안에서

땡까방까 땡까방까 기차안에서 어여쁜 색시가 방구를 꺾니, 옆에 앉은 신사가 깜짝 놀라서 20세기 나아타 방구 지독하구나...

: 아마도 기차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리 오래된 노래는 아닌듯

#### 10-12. 구전노래-돼지붕알

엄마야 뒷집에 돼지붕알 삶더라

좀주더나? 맛있더나?

찌-찌- 찌릉내 나더라...

#### 10-13. 구전노래-하나 둘노래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집는다고 랄라라

둘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랄라라

셋하면 새색시가 통걸레를 빨다고 랄라라

넷하면

다섯하면 다람쥐가 알밤을 깐다고 랄라라

여섯하면 여학생이 춤을 춘다고 랄라라

일곱하면 일본사람 칼싸움 한다고 랄라라

여덟하면

아홉하면

열하면 옛장수가 옛한가락에 십원

# 고향이야기

블로그 一德 블로그 <http://blog.daum.net/99bjmin>

저자 一德

발행일 2012.01.26 11:56:42

 블로그